



INTO THE DREAM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HOUR PASSION 롯데월드몰점 코엑스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터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악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간택스점 디류브시티 신도림점 거제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SEOUL GMT
AUTOMATIC SWISS MADE
Limited Edition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15 vol.119



Cartier

Ballon Blanc de Cartier New Collection



www.chanel.com

THE CHANEL MOMENT

L'INSTANT
CHANEL



26



40



표지에 소개한 제품은 해상차별 등장한 블롱 블랑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다. 까르띠에 매종의 주얼리 제작과 워치메이킹의 비법을 담은 여성 시계로, 9.39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1백39개가 세팅되어 있다. 우아한 조약돌 형태의 케이스와 블루 핸드스가 우아하고, 유연한 브레이슬릿은 놀라워 린 리본처럼 눈부시다. 문의 1566-7277



18



10

- 12 **스마트 세상에서 명품해치지 않으려면?** 첨단 스마트 세상에서 오히려 인공은 명품해치는 패해가 자주 거론되지만 적어도 우리에겐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선택권'이 있다. 스스로 기술에 파묻히지 않도록 부단히 '질제'와 '사색'을 모색하고 디지털 격차에서 비롯된 다름을 인정하며 이런 눈부신 흐름 속에 소외된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4 **ATTRACTIVE ROSE** 소장 가치를 높이고 럭셔리한 클래식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섬세하고 진귀한 로즈 골드 워치에 주목하라.
- 16 **MATCH-UP** 다이얼이 시계의 얼굴이라면 스트랩은 스타일이다. 시계의 얼굴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스트랩 매치 플레이.
- 18 **MOST PRECIOUS**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이아몬드의 순수한 반짝임을 담아낸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컬렉션.
- 26 **BEHIND THE CAMERA** 할리우드의 별들과 화려한 스토리를 지닌 해리턴, 그리고 영화인들이 어우러진 멋진 시상식 현장 속으로.
- 27 **EXCLUSIVE SPECIALTY** 분다삼 창단에 국내 단독 입점한 3개의 익스클루시브 브랜드가 당상의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킨다.
- 28 **NEXT IT BAGS** 이번 시즌 선풍 여부에 따라 시그니처 백으로 발돋움할 차세대 잇백 리스트가 대기 중이다.
- 29 **WATERY BUBBLES** 피부에 닿으면 물방울이 타지듯 촉촉하게 변하는 특별한 텍스처는 오직 사뮈엘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이자, 신제품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버블 세럼'이 지닌 강점이다.
- 30 **BRIGHTER SKIN** 잡티를 줄이고 착착한 낮빛을 밝히고 싶다면 한 달간 집중 케어에 공들여보자.
- 31 **ABSOLUTELY PRECIOUS** 귀하고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랑콤 장미와 진보된 테크놀로지가 빛어낸 압슬뤼,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럭셔리 에디션, '압슬뤼 프레셔스 셀 크림 코프레'.
- 32 **SYNERGY EFFECT**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건강한 피부의 토대를 만드는 사나지 코즈메틱.
- 33 **MYSTERIOUS SCENT** 영국 향수의 명가, 조 말론 런던이 여섯 가지 비밀의 향료를 담은 '코롱 인텐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 34 **COUTURE COSMETICS** 패션 하우스가 보여주는 뷰티 브랜드에 대한 판타지는 그들이 선보이는 의상만큼이나 드라마틱하다.
- 35 **BOOST YOUR SKIN ENERGY** 세포 생을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성화 화해주는 골드 오이드 추출물을 담은 2015년 첫 번째 스킨케어를 소개한다.
- 36 **REAL CELL ESSENCE** 리엔케이(RE:NK)는 리얼 셀 1백만 개를 담은 '셀 투 셀 에센스'로 아름다운 피부를 약속한다.
- 38 **EDITOR'S PICK** 새해가 밝았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예리한 눈으로 포착한 뷰티 아이템을 업데이트하라.
- 39 **NIGHT MAGIC** 프레쉬가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티 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밤 사이 지친 피부를 일깨워준다.
- 40 **THE WORLD LEADER OF NOBLE FIBRES** 계절과 유행을 타지 않는 진정한 럭셔리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탈리아 보르고세시아(Borgosesia)에서 만난 콜롬보의 노블 피이버 월드.

Style 조선일보

Issue.119 January 2015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서빛 그라피크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or

미래의 아름다움까지
약속합니다.

CAPTURE TOTALE

NEW 캡춰 토탈 르 세럼

디올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기술이 집약된 토탈 안티 에이징 스킨케어. 탱탱함, 속탄력, 주름까지. 사용한 첫날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피부 개선효과를 선사합니다.

디올의 새로운 발견. 디올 가운데서 재배된 론고자 추출물이 함유된 NEW 디올 캡춰 토탈 르 세럼. 보다 미세해진 입자와 놀라게 개선된 흡수력을 바탕으로, 피부 속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속부터 탄력있고 건강해진 유년 시절의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모든 여성에게 사랑받는, 속부터 차오르는 피부로 인해 완성되는 아름다운 인상

캡춰 토탈, 오늘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www.dior.com



Jewel
LUCKY
PENDANTS

작지만 인상적인 심플한
모티브의 펜던트 네크리스.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핑크 칼레도노 로 나츠를 표현한 카렌스 오가네 컬렉션 네크리스 2백70만원대 **카렌오**, 화려한 곡선으로 여성스러운 하트를 완성한 인텐트 하트 펜던트 6백만원대 **타미니**, 양재적으로 하트 모티브를 구현한 트라피 컬렉션 하트 네크리스 6백30만원대 **카렌오**, 플라워담에 다이아몬드로 화이트 스파카를 완성한 크로스 펜던트 7백만원대 **타미니**, 자물쇠 모티브의 아스트라 네크리스 1백90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심플한 산자카 네크리스 1백20만원대 모두 **타사카**.

프로그래머 박근주

Fashion
FASHION,
CULTURE AND A LIFESTYLE

패션 브랜드의 충성도 높은 고객은 매년 컬렉션뿐만 아니라 걸가자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라인과 스페셜 에디션까지 사수한다. 속옷, 라이프 스타일 웨어, 홈 데코 등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 순항 중인 뉴 컬렉션에 빠질 준비가 되었는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라인이 나올까 싶은 정도로 없는 게 없는 빈틈에서 자전거의 비취실을 뜻하는 이름의 '스포크(Spoke)' 라인을 선보였다. 필라테스, 러닝 등 시티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을 위해 태어났다. 편안한 저지름, 핏이 여유로운 사파리 점퍼, 우븐 팬츠 등은 운동하다가 곧장 나와서 도시를 활보해도 좋을 만큼 실용적인 동시에 멋스럽다. 패션 피플이 열광하는 이크네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속 빼앗은 언더웨어 컬렉션을 처음 만들었다. "나는 언더웨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더웨어는 베이저나 스킨 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니 요한슨의 말처럼, 피부의 일부분처럼 보일 정도로 담백하고 간결하다. 한가울 추위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마시모두피의 패셔너블한 제안도 이어진다. 1950년대 스위스 알프스 산맥과 대자연의 풍경에서 영감을 얻은 'Après Ski' 컬렉션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고급 천연 소재만 사용한다. 울로 이루어진 패딩 팬츠, 오리털 패딩 베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판매하며, 리미티드 에디션인 만큼 몇 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서두를 것. 홈 데코 브랜드 자라 홈은 이제 드디어 코엑스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베드 룸, 테이블과 가구, 캔들 등 공간을 꾸미는 다양한 용품이 준비되어 있다. 트렌드에 맞춘 빠른 회전력이 강점인 자라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무거운 제품을 들고 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에터 에베진**



마시모두피



빈틈

자라 홈



이크네



Beauty
POWER OF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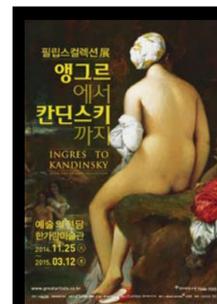
아침 스킨케어 후 오전이 지나기 무섭게 건조해지는 피부엔 보습력이 뛰어난 페이스 오일이 절실하다. 오일이 번들거리고 끈적임 가리는 편견은 버릴 것. 피부에 걸들지 않는 신폴한 마무리감으로 지성 피부에 사용해도 만족스러워 테나까.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고 피부에 윤기와 광채를 선사해줄 고보습 페이스 오일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방콕 암슬워 프레스스 오일 너리싱 루미노스 오일**은 고구마 정미 오일 과 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피부 보호막의 자질구조를 강화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눈에 띄는 정도로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0ml 27만원대). **아미노산**을 함유한 위생 발공 성분 **겔랑 아베이 로얄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은 탁월한 피부 재생 효과로 피부 탄력과 보습력을 높인다. 친숙한 오일이지만 피부에 가볍게 흡수되며 보습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장점(28ml 12만2천 원대). 고급스러운 골드 패키지가 눈에 띄는 **디올 프레스시지 릴 수브랭**은 고농축 로즈 수브랭 앰플루트를 담은 오일 세럼으로, 피부에 집중적인 영양을 공급한다. 이는 디올 코즈메틱의 프레스시지 라인에서 선보이는 제품답게 뛰어난 보습력과 부드러운 텍스처, 고급스러운 향까지,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췄다(50ml 45만원). **에스티 로더 리질리언스 리프트 리스탁티브 래디언스 오일**은 천연 코코넛,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자극 없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로션을 바르기 전 손바닥에 몇 방울 떨어뜨려 얼굴과 목 전체에 바르거나 사용하는 크림에 섞어 바르면 보습 효과 가 배가된다(30ml 12만원대). 수분이 부족한 탈수 피부라면 **클라리스 블루 오가드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을 추천한다. 블루 오가드 성분이 피부에 편안함을, 헤이즐넛 오일이 활력을 부여한다. 촉촉함과 보습력이 넘칠라 거친 피부도 즉각적으로 유연해지는 것이 특징이다(30ml 6만2천원). **에터 권유진**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미학적 정수를 품은 라이프스타일 쇼룸, B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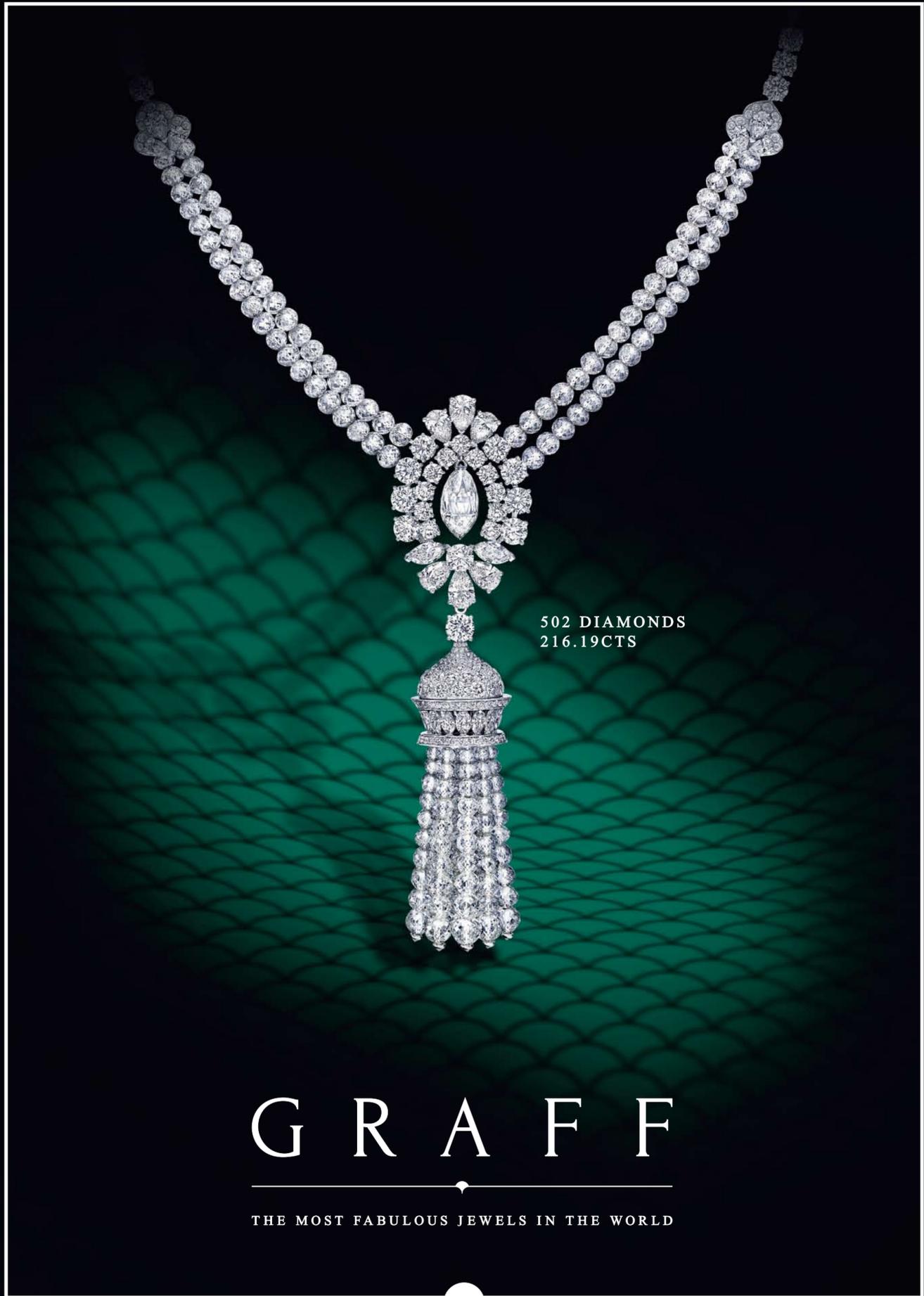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의 미학을 인테리어에 담아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공간이 생겼다. 세계적인 리빙 브랜드들을 매력적으로 조합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쇼룸(BOE). 서울 강남 학동 사거리 근처, 주택을 개조한 건물에 자리 잡은 이 매장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감각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의 가구와 함께 독특한 디자인의 디테로운 거울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구뿐만 아니라 꽃병, 주전자, 머그, 향초 등 디테일이 앙증맞게 살아 있는 소품들, 그리고 유럽 갤러리에서 선별한 매력적인 아트 컬렉션까지 아우르는 흥미로운 곳이다. 이 매장은 2개의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 A동은 독립수입하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글라스 전문 브랜드 글라스 이탈리아(Glas Italia)의 세련된 남자는 가구들과 함께 스칸디나비아인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프리츠 한센 등을 만날 수 있고, B동에는 국내에서 팬텀을 형성한 덴마크의 가장 핀윌의 나무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원 컬렉션(One Collection)', 기능미 본보이는 덴마크 가구 브랜드 랑게 프로덕션 제품 등이 들어서 있다. 근사한 송치 소재의 카펫이 군데군데 깔린 매장을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체코 전통 기법을 사용했다는 조명 브랜드 라스넷(Lasnet)의 고혹적인 작품과 고구마에 과감한 색상의 패브릭을 덧댄 색다른 느낌으로 마니아층을 거느린 영국 수공예 가구 브랜드 스퀴트 리미티드(Squint Limited)의 개성 만점 작품, 그 밖에 실용성과 디자인 감각을 겸비한 아가자까지 각종 소품도 시선을 잡아끈다. 또 야외 공간에는 아웃도어 가구 전문 브랜드 에뮤(EMU)의 재기 발랄한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미학적 정수를 담은 '토탈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남다른 개성과 가치를 지닌 가구들의 조합이 공공한 이들이라면 꼭 한번 '노크해볼 만하다. 홈페이지 www.bo-e.co.kr 문의 02-517-6326 **에터 고영진**



Exhibition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展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다.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반 하나 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이 같은 명문을 남긴, 현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이름다운 작품을 비롯한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 같은 추상 표현주의, 이에 앞선 피카소를 선두로 내세운 20세기 모더니즘, 그리고 모네, 세잔, 드가 등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인상파와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앵그르, 낭만주의 화가로 유명한 고야를 포함한 19세기의 미술 흐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3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전이다. 미국의 필립스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미술의 걸작들을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회로, 앞에 언급한 거장들 말고도 조지아 오키프, 아돌프 고틀립, 김환기 등 서양미술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68명의 예술혼이 빛을 낸 명화 85점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필립스 컬렉션은 1921년 기업가 던컨 필립스가 워싱턴 DC에 설립한 미술관으로 미국 최초로 근대 회화 전시를 시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설립자의 깊은 예술 사랑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의 명화를 수집해온 필립스 컬렉션의 명작을 접하면서 19세기 고전주의와 사실주의부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시대를 거쳐 추상 표현주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에터 고영진**



502 DIAMONDS
216.19CTS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for him Selection

매서운 칼바람에도 끄떡없을 패딩과 양털, 그리고 보드랍고 따뜻한 울, 캐시미어까지, 겨울 소재에 꼭 빠진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개방적인 카미카미와 클래식의 스타일스 3000원, 50만 원에 by 무이엑세서리.

따뜻한 모직 소재의 플레인 체크 패턴 모자 35만원, 패딩 100% by 무이엑세서리.

클래식하고 포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패딩 재킷 65만원, 몬테코레.

스포츠한 디자인의 양털 클러치, 30x32cm, 53만원, 페노메는 by 무이엑세서리.

중성적인 리본을 양털이 감싸진 모자 20만 원, 무이엑세서리.

레오파드 패턴이 엷스로운 송치 카드 지갑 23만원, 드리스 반노트 by 분더샴.

하이킹 부츠에서 모티프를 얻은 알파인리스트 앵글부츠 11만5000원, 루이 비통.

타탄 체크 패턴의 트윈드 스카프 72만원, 몬테코레.

흰색 양털과 노란색 산드리아 패턴이 조화를 이룬 100% 양털, E61728, 몬테코레.

최고급 카른빈초 가죽으로 만든 장갑 5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의 체크 마블리 1백28만원, 키톤.

선명한 블루 컬러의 양털과 모노그램 패턴 가죽의 조화가 유니크한 마크 뉴슨 백팩, 29x48cm, 7백만원, 루이 비통.

- 키톤 02-6905-3787
- 몬테코레 02-3443-4507
- 몽클레르 02-310-1314
- 몽클레르 02-514-0900
- 분더샴 02-3444-3300
- 생로랑 02-6905-3924
- 루이 비통 02-3432-854
-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 윌리엄 더블유 02-522-4343
- 무이엑세서리 02-3446-8074
- 슬로웨이 070-4145-0101
- 에르메네젤도 제나 02-518-0285

마치 피와 같은 텍스처가 느껴지는 오버사이즈의 캐주얼 코트 2백25만원, 마르니 by 콘.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퍼페추얼 캘린더와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Featuring one of the most delicate complications in fine watchmaking, the Mont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will require no adjustments until the year 2100, so long as its self-winding Calibre MB 29.15 is kept sufficiently wound. Housed in a 39 mm 18 K red gold case, this refined timepiece truly promises to be a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for her
Selection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은? 펄, 패딩, 모직, 캐시미어 등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에 주목하는 것.
photographed by kim do hyun

- 버버리 02-3385-6536
- 지미후 02-3443-9469
- 몽클레르 02-514-0900
- 팬디 02-2056-9023
- 에센셜 02-3438-6287
- 프라다 02-3218-5331
- 발렌티노 02-543-5125
- 랑방 컬렉션 02-3438-6260
- 토즈 02-3438-6008
- 샤넬 02-543-8700
- 틀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 무스너를 02-514-9006

밍크 트러밍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캐시미어 베스트 8백80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레오파드 패턴의 송치 클라치. 28.5X20cm, 가격 미정 알라베스 앤 제임스 by 톨 그레이하운드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구스 다운 패딩 1백18만원 무스너를.

크로니 나 리움에 매치하면 여성스러운 핏의 32만2천원 에버리.

부드러운 피스케 텀드 컬러와 스텝드 장식이 돋보이는 카드 지갑 33만원 알라베스.

샤넬의 유망 에디션 아이스톤 이매

화이트 아웃을 장식이 포인트인 알라베스의 부츠 가격 미정한다.

트루드 소재의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풍성하고 가벼운 아웃핏 장식을 애용한 구스 다운 패딩 117만원

코어에 올인한 대니얼 브라운 디자인의 장갑 1백만원 몽클레르.

여우털 혼방 소재의 트러밍이 럭셔리한 플로팅 패턴 패딩 재킷 2백30만원 버버리.

귀족 광채를 위한 진귀한 금빛 오일

NEW
**ABSOLUE
PRECIOUS OIL**

압슬뤼 프레셔스 오일



ABSOLUE 50 Years Anniversary

압슬뤼의 50년 노하우에 프랑스 장인의 열정이 더해져 여자의 피부를 변화시킬 압슬뤼만의 진귀한 포물라가 탄생하였습니다

약 800단계를 거쳐 추출된 로즈 에센셜 오일과 7가지 아로마 오일이 농축된 압슬뤼 프레셔스 오일 - 바르는 순간 매끄럽게 스며들어 피부 깊이 채워지는 영양으로, 금빛 새틴베일처럼 빛나는 골든 글로우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LANCÔME
PARIS



스마트 세상에서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기술은 그것이 발명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기술이다.” 앨런 케이
 네넷 살 된 꼬마가 아이패드를 갖고 놀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기기를 익숙한 장난감처럼 ‘쉽렵’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의 발언이 절로 뇌리를 강타한다.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건 디지털 라이프가 공기처럼 스며 있는 요즘 세상의 아이들에게는 몹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일이다. 냉장고를 사용하는 법이나 전기 주전자로 물 끓이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듯이 말이다.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세상이나 디지털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이나 생활 속 사물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하는 시대의 흐름을 일컫는 표현들도 따라잡을라치면 정신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이런 단어들의 홍수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스마트 세대가 ‘정말 스마트한가’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린다.

인류 역사상 독특한 세대 vs 가장 명칭한 세대
 우리는 이미 소위 ‘Y세대(보통 1977년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불만을 꽤 많이 접해왔다. 산만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스팩이 좋더라도 창의성은 떨어지며, 인사 고과가 나쁘면 엄마가 대신 회사 상사에게 따질 정도로 웅석받이라는 게 주 내용이다. 심지어는 문자나 웹 2.0, 페이스북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요즘 청소년들은 ‘지성을 쌓을 기반을 잃고 있다는 논지를 담은 <가장 명칭한 세대>라는 책을 내놓은 학자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미국 에모리대 영문과 교수 마크 바우어라인은 1980~90년대의 디지털 혁명은 손쉽게 빠르게 정보와 상품, 오락과 친구를 접할 수 있게 해줬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의 지적 능력은 미디어나 전자 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명칭한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언젠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또래 집단에 함몰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은둔과 독서, 사색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빈곤해진다는 논리다.
 그런가 하면 이와 극적으로 대조되는 주장을 펼치는 지성인도 있다. 경영 전략가이자 IT 분야 권위자 돈 탭스콧은 디지털 기술을 공기처럼 편안하게 호흡하는 ‘넷 세대(net generation)’를 누구보다 자유로움을 중시하지만 현명하며 합리적인 변화와 협업을 추구할 줄 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존재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문화 속에서 성장해 최초로 성인이 된 넷 세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편견으로 비판론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바이터브>라는 책에서 디지털 기술의 수용과 습득 측면에서 넷 세대가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로

다 뚜렷하게 잘하는 영역이 생겼으며, 이런 현상을 가리켜 ‘세대 차가 아니라 한 바퀴는 앞서 있다는 의미로 세대 뒤틀기(generation lap)’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세대 간의 오해는 항상 존재한다
 바우어라인과 탭스콧이 이처럼 양 극단으로 나누는 주장을 펼치며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벌써 6~7년 전이다. 이들의 엇갈린 견해는 온도 차는 있었지만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쟁점이다. 사실 넷 세대인 Y세대에서 ‘최고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당시 사회생활에 발을 들인 상태였는데, 이들은 이제 상당수가 성인이 됐고 일터에 진출한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X세대 보스나 선배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개탄하는 내용은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담겨 있지만 오늘날에도 Y세대나 그보다 더 어린 Z세대(199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지닌 이들은 많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경험하며 성장한 X세대는 Y세대를 다분히 이해하면서도 개인 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그들의 성향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 흥미롭게도 영국의 한 경영대학원에서는 실제로 회사에서 상사(boos)와 일을 대하는 X세대와 Y세대의 차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정답은 따로 없지만 주어진 상황은 대강 이렇다.
 평소 Y세대 후배가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시피 하며 끊임없이 SNS를 하는 데 대해, 그리고 일을 대강 하는 데 불만이 있던 X세대 직속 상사. 하지만 Y세대 후배는 반대로 선배가 일터에 있어 꼼꼼하고 유능하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Y세대는 SNS로 ‘번개탕’을 하고는 회사 로비에서 또래 동료들과 이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X세대 선배는 그런 후배를 보고는 할 일이 태산인데, 또 저러고 있다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런데 어느 날 Y세대 관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Y세대 후배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회사 대표를 따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해봐~”라는 격려와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직속 상사인 자신은 거처지도 않고 말이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멍청해지고 있는 걸까?
 이 에피소드에서 X세대가 충격을 받은 건 ‘허탈해서’였다. 후배의 아이디어 자체가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에 대한 질투를 느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런 얘기를 임원한테 스스로 없이 꺼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자신이 10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정돈도 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상사와 독대하면서 가법게 꺼낸다는 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기에, 묘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시험 문제를 놓고 X세대와 Y세대가 섞여 있는,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던 학생들도 분분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은근히 닳은 듯하면서도 다른 Y세대의 당돌함에 당황하는 X세대, 그리고 그런 X세대의 태도를 별로 개의치 않는 Y세대의 모습이 교차하는 장면이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꽤 자주 연출됐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인 세대 차라는 요소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개개인의 차이가 크겠지만 다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처럼 일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험을 겪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X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과연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자연스레 걱정을 하고, 혹시나 이런 변화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더 어린 세대의 영혼을 멍들게 하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극도로 멍청하고 인간미 없어지는 건 아닌지도 우려하게 된다. 바로 X세대의 자녀 세대인 Z세대야말로 스마트 기기를 밥 먹듯이 자주, 쉽게 다루고 영어 공부와 온라인 게임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지내는 디지털 키즈들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니콜라스 카 같은 저술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스마트 미디어가 독서나 일, 사색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뇌가 퇴화한다며 “구글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라고도 주장하지 않았는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풍경의 위대함
 독서를 하는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 큰 문제이고, 디지털 세상은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 ‘인생의 낭비’라고 했던 SNS의 홍수로 넘쳐난다. 반면 ‘넷맥’에 가까운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라면 ‘스마트 흐름’을 따라갈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늙으면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뒤쳐진 ‘구닥다리 노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디지털 세상에도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법. 요즘 아이들은 TV를 봐도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미디어 사용자 임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SNS처럼 또 다른 미디어 기능을 하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 있었기에 최근 대한민국을 달군 ‘땅콩 회항 사건’이 널리 회자됐을 테고, 디지털 세대의 자기 조직화 능력 덕분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청원을 하는 사회적 지지자’ 실현되기도 하며, 작업실을 따로 차리지 않더라도 아이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작곡을 하거나 음원을 만들고 ‘집단 창작’으로 영화도 빛내는 등 콘텐츠가 개개인에게 촉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니 말이다. 최근 한 X세대 엄마는 딸수가 별로 없고 평소 예 거의 게임기만 끼고 사는 듯하던 자신의 여덟 살짜리 아이가 달리 보이게 된 ‘작은 사건’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원래 레고 블록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꽤나 복잡한 조립식 모델을

만드는 유료 공간이 있는데, 아들이 그곳에 가면 오랜 시간 혼자 놀면서 집중하더니 나중엔 하루 종일 ‘풀어놓아도’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거의 중학생 수준의 고난이도 모델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난 우리 아이가 게임을 빼면 통 집중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쳐주지 않은 수학 문제도 혼자 풀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미드도 내려받아주더라고요. 단지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하는 건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겠지만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스마트 세상에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프라이버시부터 보호해야
 그렇다. 드라마 <미생>에서 그토록 호응을 이끌어낸 X세대와 Y세대의 혼혼한 선배 사랑은 것처럼 이상적인 수준은 아닐지라도 분명 가능한 일이다. 세대 간의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다름의 장단점을 인정한다면 ‘스마트함’에 대한 시각 차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같은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미래학자 피터 헨린이 말했듯 이미 디지털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고,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 기술을 기술이라 인식하지도 못하는 진정한 ‘디지털 놀이터’가 더 활기차게 형성될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신인류가 쏟아내는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아이패드 신제품에도 지문 인식 기능을 장착하는 등 개인 보안은 강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유수 기관과 기업들은 ‘해킹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금융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게다가 많은 이들이 ‘빅데이터 세상을 찬양하지만 누군가에게 악용되는 블로그와 SNS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무수한 개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인터넷 바다에 ‘공짜로’ 뿌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방어기제를 사회적, 국가적, 법자구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일야말로 인류가 멍청해지지 않기 위한 진정한 ‘지상 과제’일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MIT대 알렉스 샌디 베를랜드 교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갖 기기들과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가 이를 수집하는 조직에서 축적되고 있는데, ‘데이터 소유권은 절대로 구글 같은 기업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 흐름을 통제하는 ‘데이터 뉴딜(New Deal on Data)’이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바람직한 움직임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스토리를 상기하게 한다. ‘인터넷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는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는 수년 전 비공개로 설정해놓은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정작 자신의 신상이 ‘털리고’ 마는 수모를 겪었는데, 더욱 흥미로운 건 그가 2013년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주택 네 채를 사들였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였다. **IS** **에디터 고영선**



attractive Rose

소장 가치를 높이고 럭셔리한 클래식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섬세하고 진귀한 로즈 골드 워치에 주목하라. 시계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로즈 골드는 궁극의 하이엔드를 경험하게 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오메가 피제트 초스오메가 엑스투라-원 브랜도 창시자인 줄스-루이스 오메가의 이름에서 오메가를 얻은 클래식 라운드 남성 워치로, 줄스 오메가 디자인의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기묘한 패턴을 다한 심플한 다이얼과 블랙 악자 가죽 스트랩, 배젤에 새겨진 95개의 브로이던트 컷 다이아몬드가 클래식하면서도 럭셔리한 면모를 자아낸다. 4천원대, 문의 02-3449-5917

브라이틀링 크로노멧 44 브라이틀링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항공 시계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크로노멧 로즈 골드 컴비 워치. 인체감 있는 로마숫자 인덱스와 다이얼에 새긴 기하학적인 패턴이 스포티하면서도 화려함을 부각한다. 섬세하게 설계한 가스킷 시스템과 크라운, 푸시 버튼, 스크류-인 케이스 백의 조합으로 500m 이하 워치 수준의 방수 성능을 갖추었다. 1천7백원대, 문의 02-3448-1230

위블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 골드 위블로의 아이코닉 워치의 고유한 디자인을 클래식하게 재해석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45mm 워치. 무경 블랙 다이얼에 2개의 타이머, 바 타임의 인덱스, 6시 방향의 날짜 창이 탑재되어 있다. 기존의 골드 소재에 5%의 플래티늄을 혼합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컬러가 고급스러운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4천원대, 문의 02-2118-6208

크로노스위스 시미우스 레귤레이터 과거 회중시계에서 모티브를 얻은 로즈 골드 레귤레이터 남성 워치. 시, 분, 초를 따로 디스플레이한 디자인으로 시간을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시침을 보통 시계와는 달리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해 시침과 초침이 겹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큰 장점. 40mm의 심플 컬러 다이얼 위에 정교한 기묘한 패턴을 새겼으며, 그 위에는 310°C의 열기 아래에서 탄생한 블루 핼조를 더해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오트메틱 무브먼트 C122를 장착해 4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천3백원대, 문의 02-545-1780

오메가 씨미스터 아쿠아테라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 은은한 블랙 컬러의 다이얼과 18K 레드 골드 케이스의 조화에서 강한 남성기가 느껴지는 오트메틱 워치. 150m 방수가 가능하고 코-엑시얼 칼리버 8500G를 탑재해 1천5백 기우스 이상의 자기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강한 힘을 갖추었다. 3천5백원대, 문의 02-511-5797

몽블랑 헤리티지 퍼페츄얼 칼리버 몽블랑의 오랜 역사와 기술을 집약한 헤리티지 컬렉션의 퍼페츄얼 칼리버 버전. 몽블랑 마스터스틱 맨패인의 출시 90주년을 기념하는 라인으로, 근대적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클래식함이 돋보인다. 블랙 컬러의 알리케이터 밴드와 39mm 로즈 골드 케이스의 조화가 멋스럽다. 2천원대, 문의 02-2118-6053

에거 르클트르 그랑 리베르스 나인 앤 데이 에거 르클트르의 시그니처 디자인에 오트메틱 오우팅 무브먼트를 장착해 편의성을 향상시킨 18K 핑크 골드 그랑 리베르스 워치. 아르데코 스타일의 다이얼 위에 24시간 스케임을 따라 회전하며 낮과 밤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자리 잡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인디케이터는 낮과 밤의 영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분에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천2백원대, 문의 02-6905-3998 에디터 권유진



paradise redefined
BOUNDLESS BEAUTY, ULTIMATE LUXURY,
TREASURED MEMORIES

Finolhu Villas
LE LUXE
by Club Med

2015. 2. Grand Open

www.clubmed.co.kr | 02.3452.0123

Match-up

다이얼이 시계의 얼굴이라면 스트랩은 스타일이다. 상황과 취향에 따라 어떤 스트랩을 매치하느냐는 상상 이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계의 얼굴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스트랩 매치 플레이.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블랑팡 빌라레 울트라 슬림 포 우먼** 여성 워치에 주로 매치하는 출중한 감각의 메시 브레이슬릿, 직물처럼 손목에 착 감겨 착용감이 뛰어나고 시계를 보다 화려하게 연출할 수 있다. 손목이 가는 여성에게 잘 어울리고 스트랩 교체기 손쉬운 것도 장점. 클래식한 다이얼의 워치라던지 레드 컬러와 같은 선명한 색상의 악어 가죽 밴드를 서브 스트랩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파르미자나 톨다 1950 에르메스와 파르나심을 맺어 캘리기가 최상인 가죽 밴드를 선보이는 파르미자나. 우아하고 섬세한 칼라의 가죽 밴드를 보유하고 있다. 심플한 디자인의 골드 소재 다이얼을 선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칼라인 블랙 악어 가죽 혹은 가죽 패턴이 도드라지는 앵버 컬러 밴드는 가장 고전적인 선택이다. 악어 가죽은 입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트랩을 따로 주문했을 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워치 2천2백90만원, 악어 가죽 스트랩 별도 구매 시 90만원대. 문의 02-310-1737

오메가 시마스터 300 티타늄과 18K 세드나 골드 컬러 브레이슬릿 워치. 예를 시계로도 각광받는 골드 컬러 브레이슬릿은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오래도록 착용해도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 있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인다. 대부분 레더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구입하기를 추천한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위블로 빅뱅 패러디 티타늄 카본 패러디 내부 가죽 시트와 동일한 스케도니 가죽을 라바에 덧대어 실용성을 강조한 위블로의 라바 스트랩. 러버 스트랩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는 각기 다른 기술력으로 완성한 견고한 라바 스트랩을 선보이는데, 위블로는 가죽과 라바를 덧붙이는 독특한 방식으로 유명하다. 라바 소재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금속이나 특수 소재를 쓰는 경우도 많다. 케이스 양쪽에 위치한 사다리꼴의 푸시 버튼을 사용하면 스트랩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라바 밴드는 별도의 도구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시 교체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3213-2239

에르메스 에이치 아이 MM 오토매틱 기존의 에이치 아이 라인에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신제품. 해마다 새로운 가죽 밴드 칼라를 선보일 만큼 가죽 가공에 특별한 노하우를 지닌 브랜드인 만큼 선명한 칼라의 가죽 밴드가 이롭다. 대부분의 명품 워치 브랜드는 다양한 종류의 이그조틱 레더 스트랩을 갖추고 있는데 타조 가죽과 뱀 가죽, 장어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가죽의 종류와 가공 방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악어 가죽이 가장 비싼 편이다. 가죽 스트랩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땀과 습기를 피하고 매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진 속 스무스 오렌지 악어 스트랩과 옐로우의 스무스 라임 커피 스트랩은 모두 여성용 워치에 화사함을 선사한다. 워치 2천1백만원대, 악어 가죽 스트랩 63만원대, 커피 가죽 스트랩 32만원대. 문의 02-3448-0728 에디터 배미진

지금 떠나자
뜨거운 겨울 파라다이스



클럽메드 카니, 몰디브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겨울휴가의 모든 것,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항공포함 성인 3박 5일 휴가 127만원부터(유류할증료, 공항세 포함)
만 4세 미만 아동 리조트 무료

출발일: 2015년 1~4월 중 예약마감: 2015년 1월 31일까지
리조트: 몰디브 카니, 오키나와 카비라, 발리, 푸켓, 빈탄, 계림, 말레이시아 체러링, 훗카이도 사호로, 중국 야블리
객실상황 및 유가변동으로 상품이 변경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가능.

02 3452 0123
www.clubmed.co.kr

꿈꾸던 휴가, 그 모든 것!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휴가

- ▣ 왕복 항공권 및 공항 클럽메드 간 교통편
- ▣ 알찬 프로그램이 가득한 연령대별 키즈클럽
- ▣ 고가격 식사 및 종일 제공되는 음료, 주류 및 간식 서비스
- ▣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및 강습
- ▣ 인력한 객실
- ▣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 파티
- ▣ 곤돌라, 리프트권 및 스키, 보드 강습 (SNOW 리조트)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드러낸
김남주가 왼쪽 손목에 착용한
제품은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총
1.44캐럿, 1백5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뉴 베누아 주얼리 워치,
프랑스어로 유조를 뜻하는
'베누아'에서 영감을 얻어 1920년
탄생한 우아한 위치를 클래식하게
재해석한 버전이다. **까르띠에.**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밴드까지
18K 화이트 골드로 완성한 '미니 뉴
베누아 주얼리 워치, 타원형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왼쪽 손목에
착용한 제품은 핑크 골드 소재 러브
브레이슬릿, 1.6캐럿에 달하는 순수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궁극의 우아함을
선보이는 '1895 컬렉션 네크리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모두 **까르띠에.**

most precious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이아몬드의 순수한 반짝임을 담아낸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컬렉션이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여배우로 기억되는 김남주의
아름다운 손목을 감싸 안았다. 까르띠에와
김남주가 만들어낸 매혹적인 순간들.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화이트 셔츠와 잘 어울리는 18K 핑크 골드 소재 미니 탱크 아메리칸 주얼리 워치. 매끈한 스내이크 체인 브레이슬릿과 다이아몬드 세팅이 화려하다. 이어링은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르띠에 다우르 컬렉션 이어링. 모두 **까르띠에**.



거북이의 등 모양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똑뚜 주얼리 워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크라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샤이니 클라넷 레드 얼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더욱 눈에 띈다. **까르띠에**.



패브리카림 손목을 유려하게
감싸는 핑크 골드 발롱 블랑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워치.
브랜드의 세공 기술과 뛰어난
완성도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주얼리 워치다. **까르띠에.**

18K 화이트 골드로 완성한 순수한
느낌의 발롱 블랑 드 까르띠에 워치.
베젤을 따라 1백1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왼쪽 손목에 착용한 제품은
'꽃'에서 영감을 받은 화이트 골드 '저스트
앙 클루 브레이슬릿'. 모두 **까르띠에.**





섬세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발롱 볼루 드 까르띠에 주얼리 워치. 예를 워치로도 각광받는 모델로, 조약돌과 같은 아름다운 원형 케이스가 손목 위에 동동 떠 있는 듯한 예술적인 감각을 선사한다. 핑크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럽다.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최수경
스타일리스트 김성일, 최영주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워치 컬렉션인 탱크 워치의 여성용 '탱크 앙글레즈' 주얼리 워치. 18K 핑크 골드 8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스트랩 컬러에서도 까르띠에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다. 놀라운 광채를 담은 각 1.8캐럿에 달하는 '1895 컬렉션' 이어링은 감남주의 풍부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모두 **까르띠에.**



behind the Camera

해밀턴이 올해 8회를 맞은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에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을 예상했다. 지금 가장 트렌디한 도시로 손꼽히는 LA에서 만난 할리우드의 별들과 화려한 스토리를 지닌 해밀턴, 그리고 영화인들이 어우러진 멋진 시상식 현장 속으로.

영화 밖 영웅들을 위한 해밀턴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

할리우드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와 스타 비즈니스의 총체를 담고 있는 곳이다. LA는 영화 산업의 강렬한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박진감 넘치는 도시이며, 해밀턴은 워치 브랜드로서 이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해밀턴이 매년 개최하는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는 올해 8회를 맞았을 정도로 할리우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해밀턴은 매우 독특한 시계 브랜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계 기업인 스와치 그룹의 핵심 브랜드이지만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에서 탄생했기에 미국의 실용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스위스의 정밀성을 모두 담은 복합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눈에 띄는 역사를 갖고 있기에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이 시상식의 가장 남다른 점은 배우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 스스로 영화에 기여한 스태프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배우가 꼭두각시처럼 시상자로 나오는 형식적인 시상식 대신, 자신의 작품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스태프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 오는 의미 깊은 행사인 것이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콘셉트의 시상식에 아낌없이 후원하는 워치 브랜드 해밀턴의 노력은 올해도 충분히 빛을 발했는데, 골든 글로브를 수상한 에밀리 블린트가 시상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 행사의 진정성을 더욱더 극대화했다. 해밀턴이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LA 에벨(Ebell) 극장에서 개최된 시상식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니, 해밀턴이 시계 브랜드가 아닌 영화 브랜드라 해도 될 만큼 깊은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와 시계 브랜드의 만남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해밀턴이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영화인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 수상자와 참석자는 모두 오스카상, 골든 글로브, 에미, BAFTA(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SAG 어워즈(미국 배우 조합상) 등 86개가 넘는 부문에서 후보에 지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함께 작업했던 영화의 감독, 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등 스태프에게 직접 시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배우 채닝 테티엥과 스티브 카렐은 영화 <폭스게척>의 감독인 베넷 밀러에게 상을 수여했고 골든 글로브 수상자인 에밀리 블린트는 <인더 우즈>를 연출한 존 델루카, 톨 마샬, 마이크 플라토로 구성된 프로듀서 팀에 상을 시상했다. 또 매슈 구드는 영화 음악 제작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알렉산더 데스플렉을 꼽았는데 이들 모두 뜨거운 눈물을 보일 만큼 배우들과의 깊은 우정에 감동을 표현했다. 과시하거나 상을 주는 행위 자체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다른 시상식과는 확연히 달랐고, 극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 특히 시상하는 배우들은 이 분위기를 제대로 즐겼다.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할리우드의 스타들과 레드 카펫을 대신한 해밀턴의 컬러 아이덴티티를 담은 오렌지색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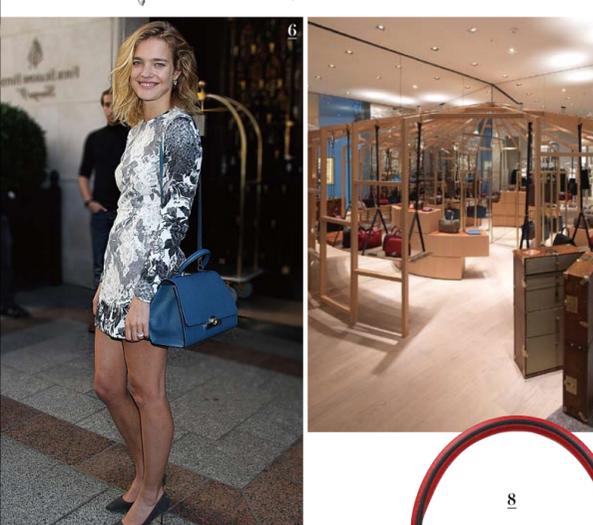


1 골든 글로브를 수상한 에밀리 블린트가 시상자로 나섰다. 지금까지 해리스 포드, 아만 맥그리거, 안토니오 반데라스, 다이앤 크루거 등이 시상자로 참석한 바 있다. 2 골든 글로브를 수상한 배우 스티브 카렐과 채닝 테티엥이 <폭스게척>의 감독 베넷 밀러에게 감동사를 전했다. 3, 6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메가 히트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해밀턴 워치가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한다. 4 해밀턴 코리아 홍보대사인 디나엘 헤미-와 글로벌 CEO 심버린 델라. 5 영화제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한 오렌지색 카펫 모두일 행사.

펫 행사와 함께 여는 시상식보다 친밀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진행을 맡은 배우 매슈 모리슨은 시종일관 유쾌하게 시상식을 이끌었고, 해밀턴 코리아의 홍보대사인 배우 다니엘 헤나가 이 행사에 참석해 해밀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4백여 편이 넘는 영화에 등장한 해밀턴 워치의 지력

LA에서 해밀턴의 지력이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올해 영화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인터스텔라>와 조우한 해밀턴 워치의 멋진 모습 때문이었다.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즈 행사와 더불어 <인터스텔라>를 배급한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해밀턴 관계자를 초청해 <인터스텔라>를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도 영화에서 시계라는 모티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밀턴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 브랜드인지에 대해 칭찬을 이어갔다. 감독과 프로듀서 모두 해밀턴이 <인터스텔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1천만 명이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한 이 블록버스터에서 해밀턴 워치는 '주인공'이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드라마틱한 장면에 해밀턴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계와 매우 긴밀하고 오랜 인연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스텐리 큐브릭의 미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부터 <나는 전설이다>, <맨인블랙> 3부작, <다이하드>, <인터스텔라>까지 함께한 영화의 이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시신을 사로잡는 스타일과 시계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해밀턴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다. 단지 돈을 앞세워 후원하는 브랜드라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서 멋지게 브랜드를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영화 속 장면 제작을 위해 기여한 스크린 밖의 뛰어난 스태프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해밀턴의 젠틀한 태도는 시계와 영화 산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2015년 새로운 영화에서 해밀턴 시계를 발견한다면 영화 산업과의 돈독한 관계를 떠올리며 응원 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에디터 배미진 (LA 현지 취재)



1 레이스처럼 섬세한 7합으로 완성된 오메이트(Omate) 네크리스. 2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메가 히트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해밀턴 워치가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한다. 3 눈물 흘리는 채닝 테티엥이 <폭스게척>의 감독 베넷 밀러에게 상을 수여했다. 4 해밀턴 워치 홍보대사인 디나엘 헤미-와 글로벌 CEO 심버린 델라. 5 영화제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한 오렌지색 카펫 모두일 행사. 6 해밀턴 워치 홍보대사인 디나엘 헤미-와 글로벌 CEO 심버린 델라. 7 분다샵 창립 매장의 모이나(Moynat) 매장. 8 브랜드 최초의 뮤즈, 배우 기브리엘 레잔의 이름을 딴 레잔 백. 견고한 가죽과 우아한 형태, 엠블럼이 특징이다.



exclusive Specialty

세계 어떤 패션 스토어와 견주어도 좋은 쇼핑 공간과 감각적인 셀렉션을 선보이는 모던 럭셔리 스페셜티 스토어, 분다샵 창당. 이곳에 국내 단독 입점한 3개의 익스클루시브 브랜드가 당신의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킨다. 모나코 왕가의 공식 보석상 레포시(Reposi),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클래식한 유럽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첼라티(Buccellati)를 비롯해 1백60년 전통의 프랑스 핸드백 브랜드 모이나(Moynat)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다.

완성도 높은 하이 주얼리 하우스 레포시와 부첼라티

창당동 1세대 멀티숍으로 운영하던 분다샵이 약 2년 동안 리뉴얼을 거쳐 전례 없는 새로운 콘셉트의 스페셜티 스토어로 모습을 드러냈다. 분다샵이라는 이름의 상징성, 건축가 파터 마리노의 디렉션으로 완성된 인테리어, 동시대적인 트렌드를 감지하는 심미관 등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특별한 요소로 가득하다. 특히 세계 어느 패션 스토어와 견주어도 좋은 만큼 차별화된 셀렉션은 컨템퍼러리 디자인이 컬렉션, 핸드백, 슈즈, 파인 & 카스텀 주얼리 등 고급 트렌디한 디자인부터 하이엔드 럭셔리까지 제품군과 수량이 방대하다. 특히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브랜드는 분다샵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며 높은 만족감과 쇼핑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컨템퍼러리 파인 주얼리 하우스를 소개해볼 것. 먼저 모나코 왕실의 공식 보석상으로 이름을 떨친 레포시(Reposi)는 일찍이 패션 피플의 입에 오르내린 유명 브랜드. 얼핏 디자인만 그럴싸하게 만든 브랜드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1925년 설립된 메종의 3대째 기업을 이어가며 전통과 헤리티지를 근간으로 삼는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기아니 레포시는 고고하고 인류학적 자식에 비유를 둔 애스틱한 실루엣에 부족 장신구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재해석한다. 일렉산더 왕, 조셉 알투자리 등 동시대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칼라베이시온을 하는 가문, 아티스트와 조각가를 디자인 제작 과정에 참여시켜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강렬한 디자인, 획기적인 실루엣, 정인 정산을 갖춘 완성도는 레포시를 표현하는 중요한 아이덴티티다. 2011년에 발표한 '베르베르' 컬렉션은 레포시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인체 공학적인 면서도 독특한 요소를 담아 현대 주얼리 트렌드를 이끄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며 시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포시와 더불어 국내 단독으로 선보인 부첼라티(Buccellati)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하우스다. 주얼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인식하며 전통 세공을 중시하는 부첼라티는 루크레치아 부첼라티와 안드레아 부첼라티 부부를 영감해 절묘 감각적인 무드를 주었다. 2014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예상치 못한 컬렉션이 그에. 손으로 만든 아티스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패드 미니 커버는 정인 정산의 혁신적인 조우로 꼽힌다. 기존의 디자인이 강조된 부첼라티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신부의 면사포를 닮은 섬세한 발집 모양과 손금을 레이스처럼 조각한 오메이트(Omate) 시그니처 패턴을 담은 것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정교한 세공과 세팅 7합으로 눈을 땔 수 없을 정도. 그래서인지 악화와 결혼을 위한 브라이덜 컬렉션으로 각광받는다. 꽃 모티브로 장식한 클라키가 컬렉션은 섬세한 장인 기술과 최상의 다이아몬드 시대를 초월한 하이 주얼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아내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된 핸드백 · 트렁크 브랜드 모이나

파인 주얼리를 넘어 분다샵만의 감각적인 셀렉션은 핸드백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님에도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분다샵만의 세련된 취향과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 고객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너무나 많은 기방 브랜드가 국내 시장을 두드렸지만 그중에서도 모이나(Moynat)는 전통과 헤리티지를 품고 숨어 있던 보석 같은 이름. 1849년 폴린 모이나가 파리에 첫 번째 스토어를 열며 탄생한, 가장 오래된 트렁크 & 핸드백 브랜드로 알려졌다. 브랜드의 창시자인 폴린 모이나는 역사 최초의 여성 트렁크 제작자로도 손꼽혀, 당시 주류를 이루던 남성용 라지 디자인에서 탈피해 그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담은 트렁크를 선보였다. 아름다움 동시에 정인 정신, 그리고 파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담아낸다는 비전만 보더라도 프랑스의 감성과 세련된 멋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모토를 엿볼 수 있을 듯. 가족 가장 기술에 능통한 그녀는 트렁크에서 핸드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모이나를 성장시켰다. 대표 제품을 살펴보면, 우선 브랜드 최초의 유조자이자 열렬한 팬이었던 배우 기브리엘 레잔의 이름을 딴 레잔 백이 있다. 스퀘어도, 유선형도 아닌 우아한 형태에 담긴 실용 엠블럼과 견고한 스트랩이 인상적이다. 불루 컬러의 레잔 백을 든 니콜라 보디노바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핑크 미니 백의 경우 현대 패션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1920년대 트렁크에 주로 쓰인 브리지를 핸드백에 부착한 사각 프레임이 특징. 모이나만의 헤리티지에 현대적인 파피리엔 감성을 더한 모던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수준 높은 세공 기술과 현대적인 감성으로 빛나는 컨템퍼러리 파인 주얼리부터 프랑스의 오랜 전통을 품은 핸드백까지, 세계적인 트렌드를 관통한 분다샵만의 익스클루시브 셀렉션을 만끽할 기회는 충분하다. 문의 02-2056-1234 에디터 배미진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용성 높은 경쾌한 다용도의 링 백, 35X30cm, 3백만 원대 **셀린토**. 고급스러운 질러와 가죽, 뽀뽀 버블이 클래식한 조화를 이루는 뽀뽀 대입리 백, 40.5X30cm, 3백43만원 **구찌**. 이번 시즌 클래식선의 대표적인 문양을 담은 사각 형태의 미니 디 큐브 백, 21X15cm, 2백69만원대 **토즈**. 카트 레다와 양가죽 소재에 글라스 비즈를 장식한 새로운 트레 바게트 백, 27X17cm, 4백만원대 **펜디**. 디올 특유의 우아한 곡선과 참 장식, 견고한 핸들외 비 디올 백, 21X17cm, 4백만원대 **디올**. 에피 가죽에 담긴 새롭게 변형한 LV 로고 버블과 두꺼운 체인으로 모던한 느낌을 주는 에피 트와스트 백, 17X19cm, 3백90만원대 **루이 비통**. 사선과 격자무늬를 영보 차용한 박스 형태 코코 보이 샤넬 백, 20X13cm, 3백90만원대 **샤넬**.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라 대입리 백으로 재격인 소가죽 두블레 백, 34X16cm, 3백29만원 **프라다**. 달걀 부분의 손잡이를 늘어뜨리거나 들어서 토트백처럼 연출할 수 있는 송이가죽 소재의 알장 백, 30X21.5cm, 6백만원대 **에르메스**. 에디터 **이예진**

셀린토 02-3440-1147 **에르메스** 02-544-7722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구찌** 1577-1921 **펜디** 02-2066-9023 **루이 비통** 02-3432-1854 **샤넬** 02-543-8700 **디올** 02-513-3232

Next it bags

구찌의 재키, 에르메스의 버킨, 디올의 레이디 디올, 펜디의 바게트, 토즈의 디 백 등 브랜드 이름만 대면 단번에 알 만한 대표적인 백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성패 여부에 따라 시그니처 백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한, 차세대 잇 백 리스트가 대기 중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AEROMATE 유원정 이나리엔 이예진

Watery bubbles

이 페이지 속 세럼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몽글몽글한 수천 개의 미세 물방울이 보이는가? 이는 바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보충해줄 신개념 마이크로 버블이다. 피부에 닿으면 물방울이 터지듯 촉촉하게 변하는 이 특별한 텍스처는 오직 샤넬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이자, 신제품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버블 세럼이 지닌 강점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보습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후성 유전학, 피부 시차 등 코스메틱 분야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을 혁신적으로 접목해 독자적이고 센세이션얼한 제품을 탄생시킨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 샤넬. 이들은 울겨울, 생물학과 정밀화학, 의학, 전자공학에서 많이 응용되는 미세 유체 공학에 주목, 기존에는 없던 아주 특별한 보습 제품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바로 4천여 개의 마이크로 버블을 함유한 신개념 보습 에센스,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이 세럼에 적용한 미세 유체 공학은 수분과 유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액체를 매우 작은 단위로 제어하는 가장 진보한 형태의 첨단 과학으로, 개미의 눈물만 한 액체도 제어할 수 있다는 통설이 있을 만큼 매우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기술이다. 샤넬 연구소는 아주 섬세하고 작은 피부 세포 조직에 유효한 성분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화장품에 이 테크놀로지를 접목했고, 그 결과 피부에 완벽한 보습 효과를 전달하는 초미세 입자의 물방울 포물리를 창조해낸 것. 미세한 물방울에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수분성 활성 성분인 까멜리아 알바 PFA와 블루 진저 PFA,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지용성 활성 성분인 까멜리아 알바 OFA가 바로 그것이다. 까멜리아 알바 PFA는 피부의 자연 보습 메커니즘을 활성화해 피부를 더욱 유연하게 가꿔주고, 블루 진저 PFA는 완벽한 방어 기능을 갖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수분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 각질층에 유익한 성분인 까멜리아 OFA는 피부 친화력이 탁월한 천연 오일 활성 추출물로,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는다. 이 세 가지 유효 성분은 4천여 개의 미세 버블 하나하나에 손상 없이 안전한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가 피부에 닿자마자 분해되는 동시에 피부 속에 빠르게 침투된다. 이로써 피부 갈증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고, 강력한 플럼핑 효과를 발휘해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 채운 듯 촉촉한 광채 피부가 완성된다.

4천여 개의 미세 버블이 선사하는 강력한 수분력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을 발랐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피부에 닿았을 때 물처럼 변하는 촉촉한 텍스처다. 피부가 물에 흠뻑 젖는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독보적인 텍스처를 자랑한다. 피부에 빠르게 흡수될 뿐만 아니라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여러 번 덧발라도 제형이 겹들지 않는다. 24시간 유지되는 드라마틱한 보습 효과로, 오전이 지나기 무섭게 건조해지던 피부가 한결 촉촉하고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보다 극대화된 효과를 원한다면 항산화 성분을 고농축 함유한 이드라 뷰티 베리 모이스처 로션과 이드라 뷰티 크림을 함께 사용해볼 것.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피부가 더욱 탱탱하고 매끈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테니가. 30ml 12만 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리니스 스무딩 브라이트닝 나이트 크림, 피부 속까지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 인색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랜드의 독자적인 트랜스-루미나센트 복합체와 히알루론산을 중심으로 레온과 인디안 카노 트리 추출물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달아내 인색을 고르게 한다. 50ml 8만9천원, 문의 080-542-9052

겔랑 블랑 드 펄 화이트닝 데이 앤 나이트 트리트먼트 아첨과 저녁에 최적화된, 28일 동안 사용하는 진중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처음 개봉하면 밀봉된 화이트 펄 퓨전 캡슐이 열리면 서 화이트닝 농축액이 흘러나온다. 열리니 컨트리를 테크놀로지가 피부 7차층부터 표피까지 다크 스폿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 15mlx2개 33만원, 문의 080-343-9500

나스 아쿠아 젤 루미나스 마스크 공들여 바른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해줄 마스크. 따로 씻어내지 않고 수면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다. 강도 높은 클라리나 엘라스티 보호 성분이 충분한 수분을 들게 하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오렌지와 자몽 등 오로지 자연에서 추출한 향만 담았다. 75ml 6만2천원, 문의 02-6905-3747

가미르드 화이트 세럼 에클라 by 온드레 진정에 좋다는 가미르드 온천수와 허브 추출물 등 화이트닝에 효과적인 11가지 성분을 1병에 담아낸 천연 유가농 화이트닝 수분 세럼. 끈질기게 자리 잡은 멜라닌의 밀도를 낮춰 얼굴에 침착한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색소가 물려 있는 부위에 덧바르고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0ml 8만5천원, 문의 080-547-7000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사틴 브라이트닝 시트 마스크 브라이트닝과 안티에이징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능성 시트 마스크. 얼굴은 물론 목과 데콜레 라인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2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시트 1장에 디올 가드에서 추출한 로즈 드 그랑빌 액타, 화이트 피오니 액타, 니모나이 액타가 들어 있는 액타 세럼을 무려 2병 분량이나 농축해 피부 톤이 눈에 띄게 밝아진다. 4회분 18만5천원, 문의 02-3438-9631

케이티 서마빌 루미하이트 다크 스폿 코렉터 애플존에 도드라지는 기미와 잡티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굵스 부위 제품. 스틸 애플리케이션이 다크 스폿 주변의 순환을 도와 색소를 열게 한다. 크림까지 바르고 마지막 단계에 토크 두드리는 편한 사용법도 강점이다. 더 큰 화

이트닝 효과를 원한다면 같은 라인인 루미하이트 스킨 톤 퍼펙터 세럼을 함께 사용할 것. 15ml 10만2천원, 문의 02-515-0776

에스티 로더 시아버하이트 브라이트닝 셀 풀 스페셜티엄 브라이트닝 클렌저 숨이 있는 젤리. 모공 주위에 축적된 반질, 멜라닌이 한곳에 응집된 노화 잡티, 항상 같은 자리에 재발하는 반짝이는 잡티까지. 피부 톤이 탁해지는 네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기술력을 담은 화이트닝 클렌저. 부드러운 거품이 수분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125ml 4만5천원, 문의 02-3440-2772

샤넬 르 블랑 타겟트 화이트닝 스팟 코렉터 애플존에 도드라지는 잡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코렉터. 가벼운 플루이드 타입의 투명한 텍스처는 끈적임이 없이 상쾌하게 마무리된다. 9년근의 연구로 탄생한 화이트닝 활성 성분, TXC™와 멜라닌을 약제하는 진주 단백질 추출물이 고농축되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골라 사용하는 물은 방식 애플리케이션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10ml 10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이예진**



남다른 피부를 타고난 게 아니라면 매끈한 피복결과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에는 노력이 수반된다. 그러나 잡티를 줄이고 칙칙한 낮빛을 밝히고 싶다면 한 달간 집중 케어에 공들여보자. 색소침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다크 스폿 코렉터와 화이트닝 애플, 컨센트레이트 세럼이 당신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을 테니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bsolutely Precious



랑콤 스킨케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압솔뤼(Absolue)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귀하고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랑콤 장미와 진보된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빛어낸 압솔뤼,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럭셔리 에디션, '압솔뤼 프레스스 셀 크림 코프레'를 만나볼 시간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장미에서 비롯된 랑콤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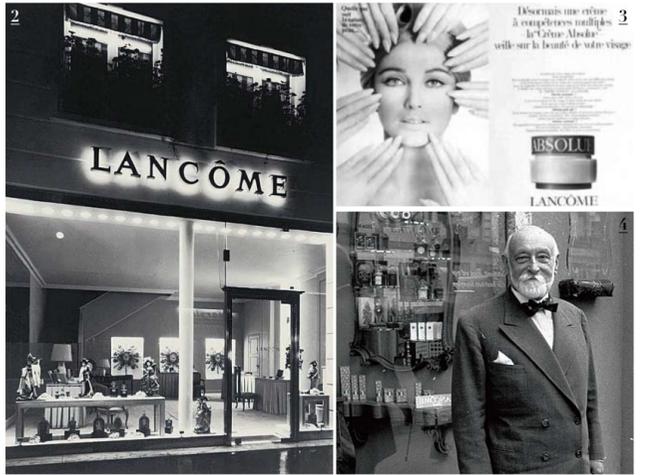
화장품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빅 브랜드의 특징은 백화점 1층에 부티크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오랜 역사, 세대를 거듭하는 시그니처 제품, 두꺼운 고객층, 그리고 독자적인 성분을 반드시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성분은 단시간 내에 발견하거나 완성할 수 없기에 끊임없는 투자와 끈질긴 노력, 연구소의 진보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개발 가능한 부분,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화장품의 귀중한 원료로 쓰이는 성분은 브랜드의 정수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프랑스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랑콤의 경우 장미와 아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랑콤과 장미는 브랜드가 탄생한 1935년부터 역사를 함께한다. 설립자 아르망 프티장(Armand Petitjean)은 자신의 정원에서 재배한 장미를 첫 번째 향수로 만든 것을 시작으로 전설적인 향수 트레조를 비롯해 제품 케이스와 광고 등 랑콤을 상징하는 모든 것에 장미를 등장시켰다. 향수뿐만 아니라 첫 번째 립스틱인 로즈드 프랑스를 비롯한 메이크업 제품에서도, 랑콤의 스킨케어 제품에서도 장미를 엿볼 수 있다. 브랜드가 탄생한 지 30년이 된 해에는 랑콤 스킨케어의 정수라고 일컫는 크림, 압솔뤼(Absolue)가 탄생했으며, 이후 세계적인 원예학자이자 장미 전문가 조르주 델바드의 손에서 탄생한, 랑콤의 이름을 딴 '랑콤 장미'를 담은 압솔뤼를 선보였다. 수년 동안 약 2천 번의 조합 과정을 거쳐 재배한 2만여 송이의 장미 중에서도 생기 넘치는 푸크치아 컬러와 풍만한 꽃잎, 강한 생명력을 지닌 특별한 장미만이 오직 랑콤 장미가 될 자격을 얻는다. 1년에 한 번, 프랑스 부르보네 지방의 말리코른에서 단 몇천 송이만 재배될 정도로 매우 고귀하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장미에 대한 연구를 이끈 랑콤은 2012년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세포인 랑콤 장미의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패기를 이루었다.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특별하고도 새로운 활성 성분을 탄생시켰고, 이 활성 성분은 압솔뤼 렉스트레 크림 등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인 압솔뤼의 핵심이 되었다.

압솔뤼 탄생 50주년 기념,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가장 귀하고 특별한 장미의 생명력을 담은 랑콤의 정수, 압솔뤼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았을 뿐 아니라 랑콤 브랜드 창립 8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반세기 동안 랑콤 연구소가 이루어낸 첨단 테크놀로지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꿈꾸는 여성들의 피부 변화에 공헌해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 압솔뤼 프레스스 셀 크림 코프레 에디션은 프리미엄 라인답게 구성이 특별하다. 압솔뤼 프레스스 셀 크림(50ml)과 압솔뤼 향기를 담은 압솔뤼 캔들, 프렌치 아트에서 영감을 얻은 금빛 패키지로 이루어져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

운 자태를 느낄 수 있다. 압솔뤼 프레스스 셀 크림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피부만 건강하게 가꾸는 게 아니라, 속부터 젊고 건강한 피부를 실현한다는 콘셉트에 따라 랑콤 연구소가 20년 넘게 식물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를 토대로 탄생한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압솔뤼 라인의 대표적인 성분인 프록-실린™이 이마 주름을 비롯해 아랫눈 주름, 윗눈 주름, 팔자 주름, 눈꼬리 주름 등 신경 쓰이는 주름 부위와 노화된 피부를 복구하고,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되살린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리치한 질감은 얼굴에 닿자마자 녹아내리듯 스며드는데, 적은 양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돌아 풍부한 영양감을 느낄 수 있다. 텍스처가 워낙 부드러워 마사지에 최적화되었다는 점도 압솔뤼 라인의 특징 중 하나. 문지를수록 날리 퍼지는 은은한 향을 들이마시면 특별한 케어를 받은 듯 기분 좋은 사용감이 느껴진다. 국내에는 2백50개만 한정 판매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이예진**

1 압솔뤼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압솔뤼 프레스스 셀 크림 코프레 에디션은 2백50개 한정 판매한다. 2 랑콤은 올해 창립 80주년이 되었을 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압솔뤼 컬렉션은 5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여성들의 아름다움 피부를 책임져왔다. 3 초창기 랑콤 압솔뤼의 광고 캠페인 이미지. 4 장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랑콤의 시그니처를 완성한 랑콤 창립자 아르망 프티장.



synergy Effect

맑고,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된다. 오늘날의 안티에이징은 단기간 사용하는 집중 케어의 의미보다는 1년 내내 힘쓰는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건강한 피부의 토대를 만드는 시너지 코스메틱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골드 오가드 에너지 로션** 피부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골드 오가드 성분은 탄력과 보습, 피땀까지 다스려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든다. 얼굴 전체에 바른 후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려면 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윤기와 생기가 살아난다. 125ml 16만5천 원대, 문의 080-343-9500

링콤 안솔퀴 프레스스 오일 링콤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안솔퀴에서 골든 글로브를 실연하는 콘셉트로 탄생한 신제품 오일. 정미 오일과 일곱 가지 식물성 에센셜 오일로 이루어진 성분은 피부 보습력을 강화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로션이나 세럼과 섞어서 사용하면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30ml 27만 원, 문의 080-022-3332

인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베레이터 Y-세이프 콘센트레 차진 인가 주름, 두무뎀술한 얼굴 라인 등 잔잔적으로 탄력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얼굴 윤곽에서 목, 쇄골선까지 늘어지고 황폐한 피부를 매끈하게 리프팅한다. 파진 마사지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Y-세이프 마사지 돌을 사용하면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0ml 18만 원대, 문의 080-022-3332

셀화수 명의원초음파 감진을 수 없이 피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는 고농축 앰플로 집중 케어에 몰입하자. 홍상, 황기, 당귀 등 약재를 담은 고농축 잔액이 피부 각 층 사이로 침투해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 푸석한 피부에 윤기를 되돌려준다. 7mlX5 20만 원대, 문의 080-023-5454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스킨케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필수 에센스로 탄생했다. 에센스 만큼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터너처럼 가벼워 여러 번 덧발라도 빠르게 흡수된다. 비오템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퍼옥시제네시스 발효 공법을 통해 발견한 라이프 플랑크톤이 피부 조직에 침투해 피땀샘을 다독인다. 125ml 6만5천 원, 문의 080-022-3332

SK-II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에센스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 피부 세포와 흡사한 조합으로 구성된 천연 발효 대사체인 피테리움*이 이루어진 워터 타입 에센스. 매끈한 피땀샘, 힘 있는 탄력, 광채, 고른 피부 톤, 표정 라인 등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다스린다. 얼굴빛이 급격하게 칙칙해졌거나 피땀샘이 가뭄해졌을 때 화장솜에 듬뿍 묻혀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75ml 9만 원대, 문의 080-023-3333

다올 캡쉬드보르 세럼 기존 제품보다 입자를 훨씬 미세하게 만든 마이크로 포뮬러로 흡수력을 끌어올렸다. 마치 미스트를 뿌린 것처럼 피부 깊숙이 밀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다올의 최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콘코자 추출물이 피부 밀도를 높여 주름과 탄력을 책임진다. 30ml 20만5천 원, 문의 02-3439-9631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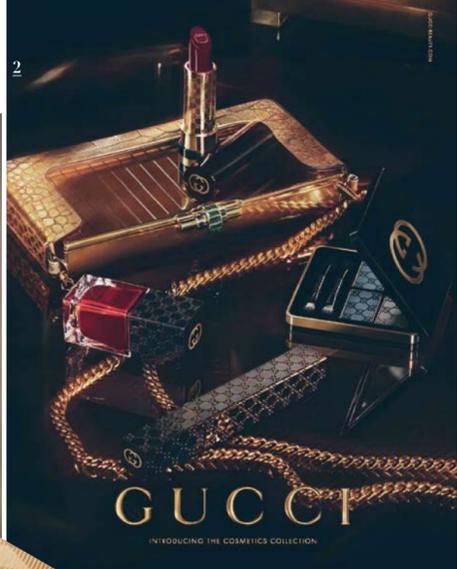
mysterious Scent

영국을 대표하는 향수의 명가, 조 말론 런던이 여섯 가지 비밀의 향료를 담은 '코롱 인텐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희귀하고 전설적인 향에서 영감을 받은 코롱 인텐스는 치명적이고 중독적인 향으로 전 세계 향 컬렉터를 매료시켰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드 앤 베르가못** 진귀한 오드의 화려한 부활. 중동 지역 나무의 스모키향과 신선한 베르가못의 투명함으로 최면에 빠지듯 고혹적인 향이 특징이다. **벨벳로즈 앤 오드** 다마스쿠 장미와 스모키 오드 우드로 감싸 풍성한 질감이 살아있는 향.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 일본의 예술적인 의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앰버, 오가드 블랙, 수련 등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 **사프론** 스파이시한 핑크 페퍼와 인센스의 열기가 나무껍질의 따뜻한 향과 대비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주는 향. **앰버 앤 파슬리** 진귀한 앰버와 파슬리의 이국적인 조합.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의 매력적인 향. **튜버 로즈 안젤리카** 튜버 로즈와 안젤리카의 그린 스파이시 타치가 관능적인 매력을 더한다.

맡으면 맡을수록 빠져드는 관능적인 향기의 보석
매혹적인 향과 우아함에 깃든 과감함, 모던한 패키지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영국 정통 브랜드 조 말론 런던. 진한 블랙베리 과즙과 자몽의 상쾌함을 담은 '블랙베리 앤 베이', 달콤한 디저트에서 영감을 얻은 '슈가 앤 스파이스', 런던의 비를 표현한 '던던 레인', 영국의 해안가 이스트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까지 매년 선보이는 컬렉션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조 말론 런던이 올해 뉴 컬렉션을 출시한다. 수천 년 전부터 신성한 의식과 치유를 위해 사용되었던 향료를 콘셉트로 한 '코롱 인텐스'가 그것. 향의 문화와 유산이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 비롯된 이 향수는 희귀한 성분이 조화를 이루며 깊고 잔란 여운이 인상적인 향수다. 왕족과 귀족 등 상위 1%만 누렸던 것으로 알려진 튜버 로즈, 다마스쿠 로즈, 키아라 우드, 오드, 사프론 등 귀한 향료는 조 말론 런던 퍼퓸머들의 손을 거쳐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 블랙 보디와 실버 캡의 모던한 패키지만 보더라도 강렬한 향의 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블랙 리본이 묶인 시그니처 패키지의 진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귀한 원료로 풍성하게 빚어낸 향은 각기 개성을 지닌 6개의 제품으로 완성되었다. 잊지 않는 색시함과 관능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포플러는 한 번의 펄펄망으로도 하루 종일 잔향을 선사한다. 배우 고준희는 "코롱 인텐스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듯한 기분을 주는 향이에요. 특히 희귀한 키아라 우드를 담은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는 중성적이면서도 관능적이라 좋아요. 가지고 있던 조 말론 런던 코롱과 컴비닝하면 전혀 다른 고준희 표 향이 완성된답니다. 파티나 저녁 약속 때 뿌리면 주인공이 된 듯 자신감이 생겨요"라며 코롱 인텐스에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깊고 우디한 향수를 선호한다면 매혹적인 '오드 앤 베르가못'을, 스파이시한 향을 선호한다면 '사프론'을, 클래식한 플로럴 성분을 좋아한다면 혁신적으로 해석한 '튜버 로즈 안젤리카'가 만족할 만한 선택일 듯. 컬렉터들이 여섯 가지 향 모두를 수집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음은 물론이다. 조 말론 런던의 기존 코롱과의 레이어링으로 아주 멋지게 조합된 나만의 향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100ml 23만 6천 원대, 문의 02-3440-2750 에디터 이예진



couture Cosmetics

“나는 내 옷을 입는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선사하고 싶었다.” - 입생 로랑 -
패션 DNA를 고스란히 담아 아름다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하나의 액세서리, 패션 코스메틱.
패션 하우스가 선보이는 뷰티 브랜드에 대한 판타지는 그들이 선보이는 오프 쿠티르
의상만큼이나 드라마틱하다. 우리가 지금 패션 브랜드의 코스메틱 카운터로 가야 하는 이유.

패션 하우스의 DNA를 담은 화장품

브랜드의 위상과 DNA를 고스란히 담은 패션 하우스의 코스메틱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 이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그들이 보유한 이미지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화장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샤넬의 립스틱을 버리는 것은 립스틱의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만이 아니다. 5백만원을 호기하는 샤넬의 2.55백은 살 수 없을지라도 샤넬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샤넬이 추구하는 여성상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패션 코스메틱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제스처임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로는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오랜 시간 찬송하게 접해온 샤넬, 디올, 입생로랑, 조르지오 아르마니이다. 이들은 패션 마켓의 하스트리니즘이나 뷰티 하우스로서도 오랜 역사와 헤리티지를 지닌 1세대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 이들에게 뷰티는 아름다운 스타일을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다. 당시 혁신적인 패션 스타일과 함께 진정한 여성의 향을 담은 향수 'N°5'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샤넬은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담은 뷰티 제품을 선보였고, 1963년 애플뉴 통테뉴의 작은 부티크 숍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정되던 무수 디올의 특별한 립스틱 '루즈 디올'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디올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았다. 색조 제품이 패션 DNA를 반영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টে미지만, 패션 브랜드의 화장품이라고 해서 꼭 메이크업 제품만 유명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패션 필드에서 형성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샤넬과 디올은 이미 방대한 스킨케어 역사를 쌓았고, 입생로랑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를 뛰어넘는 기술력과 성분을 바탕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마켓 리더로 인정될 만큼 입자를 공고하고 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고급 옷감을 다루고 테일러링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라는 명성답게 그가 패션에서 펼쳐 보인 질감, 텍스처, 테일러링에 대한 노하우를 베이스 제품에 그대로 반영, 많은 여성들이 꿈꾸는 실크 같은 피부를 선사한다.

뷰티 시장에 출시표를 던진 2세대 패션 브랜드

버버리 뷰티, 톰 포드 뷰티가 최근 한국 뷰티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그동안 1세대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가 수십 년간 뷰티 시장의 중심을 잡아왔던, 이제 막 발을 들인 패션 브랜드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마케팅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각각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만큼 자마다 개성 있는 뷰티 제품을 내놓았다. 이들 모두 상표를 보지 않아도 브랜드를 알 수 있을 만큼 콘셉트와 정체성이 확실하다. 톰 포드는 패션 브랜드가 지닌 고급스러우면서도 센수얼한 이미지를 뷰티 컬렉션에 그대로 담아 글래머러스한 컬러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로 컬렉션을 구성했다. 매력적인 패키지는 물론 텍스처, 성분까지 모두 톰 포드의 디렉션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장 인테리어와 서비스 방식까지 그가 지시한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향수 광고에서 톰 포드 자신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을 만큼, 톰 포드 뷰티의 모든 아이টে템은 그의 분신과도 같다. 버버리 뷰티는 2013년 런던 코벤트 가든에 처음 문을 연 뷰티 매장이 이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서울 코엑스몰에 버버리 뷰티 박스를 오픈했다. 패션과 뷰티가 어우러진 뷰티 박스에서는 버버리를 상징하는 체크 패턴과 트랜치코트의 디테일을 제품과 인테리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버버리의 상징적인 룩에서 영감을 받은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 럭셔리한 액세서리를 개개인에게 맞게 컨설팅해주는 고객 맞춤 서비스로 특별함을 더한다. 또 매장 한편에는 버버리의 감각적인 컬러를 담은 립과 네일 컬러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아직 국내에 론칭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뷰티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의 소식도 우리를 흥분케 한다.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뒤, 자국을 알리미에서 화려한 런칭 행사를 연구하고 코스메틱의 제품들은 일러스트에서 실제로 만나보니 더욱 매력적이었다. 구찌의 시그니처인 GG 로고가 새겨진 패셔너블한 패키지는 소중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정도. 광고 모델이자 뮤즈로 모나코 공주인 샬럿 카시라기를 선정해 구찌가 표방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 이탈리아 카프리 해변의 관능적인 여인을 연상케 하는 돌체앤가바나의 선정된 레드 립스틱과 미크 제이름스 특유의 재치를 담은 조약돌 같은 패키지의 네일 에-멜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나 국내 불로거들 사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미국 상위층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토리 버차와 마이클 코어스도 빠른 속도로 올해 하반기에 에스티 로더 그룹을 통해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첫 셋업을 완성해 가는 건강하게 그을린 내추럴한 피부, 따뜻한 생기 넘치는 컬러에서 두 브랜드의 태생과 DNA가 묻어 난다. 이처럼 패션 코스메틱 시장이 뷰티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편에선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들 여하하리, 여자들의 지갑을 가까이 열게 하는 특별함과 셀링 파워는 패션 하우스의 코스메틱 브랜드만이 지닌 독보적인 힘이니 말이다. 에디터 권유진



1,5 버버리의 영국적인 컬러와 헤리티지를 담은 매혹적인 코스메틱들. 2 구찌를 상징하는 GG 로고가 새겨진 패키지는 소중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3 샤넬의 CC 로고와 샤넬 여사가 사랑한 컬러, 베이지를 패키지에 녹인 레 베주 파우더 팩트. 4 여유로운 셋업을 위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마이클 코어스의 따뜻한 생기 넘치는 컬러의 네일 에-멜. 6 관능적인 골드 패키지가 돋보이는 톰 포드 뷰티의 립 컬러 라인업. 7 톰 포드 뷰티의 베스트셀러 향수인 그레이 베티베르의 광고 컷에서는 톰 포드 자신을 모델로 내세웠다. 8 아르마니가 패션에서 펼쳐 보인 질감, 텍스처, 테일러링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9 디올 하우스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립스틱, 루즈 디올. 10 입생로랑 뷰티의 히트 아이টে템, 푸쉬 에몰리.



boost your skin Energy

피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든 피부를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깨우는 것이다. 세포 생물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주는 골드 오키드 추출물을 담은 2015년 첫 번째 스킨케어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2015년, 새롭게 만나는 걸랑 골드 오키드 에너지 로션

해를 남기고 새해의 첫 주를 맞은 지금,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재정비가 필요하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화장대를 지켜온 화장품만으로는 부족함이 느껴지고, 더 매서워진 칼바람과 피해 갈 수 없는 건조함은 피부를 더욱 나이 들게 한다. 기존의 피부 관리법에 더해 획기적이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뷰티 레시피가 필요한 것이다. 수분 부족과 주름, 피부 처짐을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걸랑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오키드 라인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름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오키드 라인인 걸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확실한 효과를 갖춘 컬렉션이다. 전설적인 오키드 크림과 데일리 애크, 고정 고객은 물론 온라인상의 젊은 뷰티 커뮤니티에게까지 인정을 아끼지 않았던 오키드 마스크는 전통의 걸랑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널리 알렸다. 블루빛 영롱한 보름에 골드 컬러로 마감한 오키드의 고급스러운 패키지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귀히더귀한 성분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렇듯 럭셔리 화장품의 대표 주자인 걸랑 오키드 라인의 정수를 담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 바로 피부 에너지 를 차오르게 하는 골드 오키드 에너지 로션이다.

피부 에너지 충전을 위한 첫 단계

걸랑 골드 오키드 에너지 로션은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부스팅 개념의 로션이다. 최근 수면은 브랜드에서 터너 단계에 부스팅 에센스를 제안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높은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은 기초 단계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일단 고급스러운 패키지만으로도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고, 딱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펌프형으로 고안한 것 역시 매력적이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얼굴 전체가 촉촉해지는 데다 부드럽게 스며들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연하게 하고 흡수력이 빨라 상쾌한 느낌까지 든다. 골드 오키드 에너지를 한 달간 사용하여 로션 다음 단계에 주로 오일이나 크림을 발랐는데, 이전보다 흡수력이 훨씬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브랜드에서 흔히 이야기 하는 발효 에센스 이상의 효과를 느꼈을 정도로 매력적인 제품으로, 이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화장 품이 겹도는 느낌이 현저히 줄어들고 쉼스 스며들어 두드러는 빛살이 적어졌다. 저온 추출 기법으로 귀한 원료인 골드 오키드를 담아낸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드라마틱한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하일루론

산도 함유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준비운동이 필요하듯 스킨케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뮈터 신경 싸야 한다. 일반적인 제품을 넘어 피부를 부스팅해주고 피로에 지쳐 잠든 피부를 일깨워줄 스킨케어의 첫 번째 단계로 걸랑 골드 오키드 에너지 로션을 가하는 것은 새해의 가장 값진 뷰티 노하우가 될 것이다. 125ml 16만5천원. 문의 080-343-9500 에디터 배미진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만들어주어 피부의 기분을 건강하게 다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화장품에 원하는 여성이라면 참 잘 맞는 제품일 것 같아요. 첫 단계를 꼼꼼히 해야 다음 단계의 기능성 제품도 피부에 제대로 흡수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립 클리닉 김세현 원장

“정성이 느껴지는 물은 텍스처로 남다른 수분감이 돋보이는 부스팅 로션이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끈적일 거라는 걱정은 뒤로한 채 피부에 가볍고 촉촉하게 흡수되니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피부에 각질이 많은 편이라 이 로션을 먼저 화장실에 듬뿍 털어 피뭉겉을 따라 닦아낸 후, 다시 손에 적당량을 털어 피부 톱톱 패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니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요즘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피부가 건조해 고민이었는데 에너지 로션을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피부의 붉은 기와 건조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타일 조션원보> 에디터 권유진



real cell Essence

어리고 건강한 피부의 기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주름, 피부 톤, 피부결이 아니다. 피부 건강은 피부를 이루는 세포의 생명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세포 과학의 미학과 정수를 담은 안티에이징 전문 브랜드 '리엔케이(Re:NK)'는 식물 세포가 지닌 강한 에너지에 주목, 리얼 셀 1백만 개를 담은 셀 투 셀 에센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약속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해결책, 리얼 셀

피부 노화는 피부 세포의 수명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 피부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 피부에 생긴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 상처가 쉽게 이물지 않는 것은 25세를 고비로 세포의 질이 저하되고 세포의 자연적인 회복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피부 세포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시키느냐는 피부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셈. 시중에 피부 세포를 활성화하는 수많은 셀 케어 제품이 포진하고 있지만, 바나나 우유에 진짜 바나나가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실제 세포를 함유한 화장품을 찾기도 매우 어렵다. 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추출한다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세포를 변형하거나 인공적으로 모방한 성분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물론 세포를 응용한 기술로도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진짜 세포를 사용하느냐, 아니냐는 효과 면에서 천지차이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 셀 코즈메틱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세포 과학의 미학과 정수를 담은 안티에이징 전문 브랜드 리엔케이(Re:NK)다. 브랜드 출시부터 세포 과학을 콘셉트로 한 리엔케이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피부 세포와 유사한 '진짜' 식물 세포를 담은 '셀 투 셀 에센스'로 뷰티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세포 과학의 정수를 담다

리엔케이 셀 투 셀 에센스가 다른 셀 케어 화장품에 비해 단연 독보적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 식물 세포에서 추출한 리얼 셀을 함유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에센스 1병에 무려 100만 개를 담았으니 놀랍지 아니한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식물인 애버라스팅, 노팔, 물약에서 추출한 리얼 셀은 보습 효과부터 탄력, 윤기, 미백, 주름 개선까지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피부 고민을 개선한다. 이처럼 고귀하고 강력한 효능의 리얼 셀을 추출할 수 있었던 것은 리엔케이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 프랑스 명문 보르도대학의 글로벌 R&D 네트워크와 함께 탄생시킨 비파괴 성분 봉입술과 리얼 세포 분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해 더욱 차별화된 셀 케어를 가능케 한다. 비파괴 성분 봉입술은 세 가지 식물에서 분리한 세포 하나하나에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성분을 직접 주입하는 리엔케이의 핵심 기술. 리엔케이는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독자 셀인 리얼 셀-PA™ 성분을 탄생시켰다. 식물 세포의 원형을 유지한 채 하나씩 분리하는 리얼 세포 분리 기술은 세포 고유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 추출이 가능하며, 모든 공정이 오직 프랑스 내 연구소 한곳에서만 진행되어 원료에 대한 이력 관리가 100%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차별화된 기술과 독자적인 셀 성분으로 완성한 셀 투 셀 에센스의 효과는 직접 경험해본 소비자들의 후기와 임상 실험 결과로 입증되었다. 48시간 보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사용 2주 후 피부에 탄력이 생겼으며,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피부의 윤기가 개선된 것. 임상 실험 결과, 90%의 여성이 제품 효능에 만족했고, 100%가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한 느낌을 받았으며 90%가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흐른다고 답했다. 실제로 발라보니 점성이 느껴지는 묽은 투명 텍스처로, 피부에 문질렀을 때 물기가 느껴질 만큼 시원하고 촉촉하게 흡수되었다. 바르는 즉시 피부가 즉각적으로 유연해지며 잔주름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비의 귀한 기운을 담은 '호점몽 헤리티지 에디션'

리엔케이는 셀 투 셀 에센스에 대한 큰 사랑에 힘입어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나비 모티프를 더한 '셀 투 셀 에센스-호점몽 헤리티지 에디션'을 선보인다. 옷칠화가 임선미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고대 중국의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를 쫓아다니고 온갖 꿈을 맛보며 행복을 느꼈다는 호점몽 고사에서 영감을 받았다. 옷칠화가 임선미 작가는 "나비는 알에서 시작해 애벌레의 시기를 지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곤충이다. 이런 눈부신 변화는 미를 추구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소원하는 변화라고 생각했다. 리엔케이를 통해 여자들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셀 투 셀 에센스의 리얼 셀로 아름다운 피부를 통한 비찬 환희를 느낄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표현했다"라고 설명했다. 완벽한 안티에이징 효과의 셀 투 셀 에센스를 보다 특별하게 완성한 이번 에디션에는 셀 투 셀 에센스 70ml, 타임 랩 인텐스 링클 리페어 아이 & 립 크림 20ml, 타임 랩 인텐스 링클 리페어 소프너 70ml, 타임 랩 인텐스 링클 리페어 에멀전 70ml와 감사의 마음과 나비의 상서로운 기운을 전해줄 감사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해 고마운 이들에게 기쁨과 행운을 선사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리엔케이 호점몽 헤리티지 에디션은 창당 플래그십 스토어와 AK PLAZA 분당점·원주점, 대백 프라자점에서 만날 수 있다. 셀 투 셀 에센스 70ml 15만 원, 셀 투 셀 에센스-호점몽 헤리티지 에디션 18만 원. 문의 080-200-5100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평보>와 리엔케이가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

행사 기간 중 본 쿠폰을 소지하고 아래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리엔케이 베스트셀러 디럭스 샘플 4종'을 드립니다.

- ◆ 기간 2015년 1월 7일(수)~1월 31일(토)까지 ◆ 문의 080-200-5100
- ◆ 대상 Club Re:NK 고객 카드를 작성하시는 모든 방문 고객 ◆ 중점몰 리엔케이 베스트셀러 키트 (셀 투 셀 에센스 1mlx2개, 링클 리페어 아이 & 립 크림 8ml, 케이 앰플 1제 1ml + 2제 1ml, 에센스 선크림 5ml)
- ◆ 매장 Re:NK 플래그십 스토어 창당점, AK PLAZA 분당점·원주점, 대백 프라자점
- ※ 1인 1개, 1일 1명당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명하지 않습니다. ※ 중점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증정이 불가합니다.

editor's Pick

새로운 마음가짐을 담아 하나씩 적어 내려간 풍성한 계획들로 벽차오르는 새해가 밝았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예리한 눈으로 포착한 뷰티 아이템을 엄메이트하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클리닉스닉 아리아 스마트 에디션 일주일에 한 번, 각질과 모공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렌징 기기. 확실한 이 기기로 세안하면 손으로 클렌징할 때보다 각질과 피지가 눈에 띄게 정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렉스 케미어 브라시를 장착해 1분이 넘지 않도록 살살 문질러 세안하는데, 세안 후 피부가 미치 감질을 간 달감처럼 피부가 보드랍고 매끈해진다. 23만9천원. 문의 02-3497-9532 *_by 에디터 권유진*

베비트 메이저넷 부드러운 메그라운 크림 텍스처지만 머무리는 피부다러하게 발색되는 핑크빛 블러셔. 양 볼이 자연스럽게 상기된 듯한 느낌을 주고 심으면 통쾌하게 퍼바르고,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으면 그 위에 박스-오-피우더를 살짝 터치하면 된다. 7g 4만2천원. 문의 080-001-2363 *_by 에디터 이예진*

프레쉬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프레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밤 전용 마스크 팩. 색아를 필요 없이 바르고 그대로 잠들어도 좋다. 블랙티 성분이 들어 있어 인티에이징에 효과적이고 알콜 라인을 타이트하게 조여준다. 이 제품으로 마사지를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피부가 탭 탭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향기와 텍스처가 매우 편안한 오데로로 바르고 있어도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100ml 13만8천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배기진*

랑콤 그랑디오스 스마지프로프 백조의 목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부러 없어도 눈 알짜부터 눈꼬리까지 속눈썹을 풍성하게 올려주는 것은 물론, 기루가 덜 날라 이뿤기 때문에 눈을 흘릴 일도 없다. 금하게 저녁 약속이 잡히도 당황하지 않고 몇 번만 터치하면 줄러 보이는 눈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g 4만4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예진*

멜비타 로얄젤리 서클먼트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 권하는 서클먼트를 찾던 중, 이 유기농 로얄젤리 애플이 눈에 띄었다. 비타민 B 복합체, 아미노산, 효소, 불포화지방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해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스틱형 수백에, 유기농 로얄젤리보다 믿을 만하다. 10mlX20개 5만원. 문의 02-3014-2997 *_by 에디터 권유진*

디올 치크 앤 립글로우 블러셔와 립 컬러 제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면서 매력적인 아이템. 켈 타입 텍스처가 끈적임 없이 원하는 컬러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같은 컬러도 세련되게 표현하는 디올의 메이크업 제품은 지속력과 발림성까지 뛰어나다. 10ml 5만2천원. 문의 02-3438-9631 *_by 에디터 배기진*

클리닉스 모이스처 리플렉시브 합합 기아에서 주는 아메니티로 사용하면 후속 촉촉함에 더해 두 통째 구입해 바르고 있는 립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입술이 트고 따가운 통증을 자주 느끼는데, 에센셜 로즈 왁스,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이 립밤을 듬뿍 바르고 지면 부르트 입술이 몰리보게 진정된다. 15ml 3만4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권유진*

신타 미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콜로니아 멜로그노 피부다러한 향은 7월의 마스크란 한 개 없다고 자부하던 에디터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향수. 남자가 써도 좋을 만큼 중성적으로 해석한 석류 향의 달콤함과 따뜻한 진황이 포근한 느낌을 준다. 100ml 19만9천원. 문의 02-546-1612 *_by 에디터 이예진*

시세이도 라바이탈 바이탈 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 필자 주름 크림이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입의 필자 주름과 피부 탄력에 효과적 인티에이징 크림. 향차 및 추출물 AAA가 결합되는 필자 주름과 피부 처짐을 개선하고 시세이도 VP8 복합체가 윤곽, 피맛결, 피부 톤을 개선한다. 결흔을 만든 지인들에게 추천할 만큼 효과가 확실하다. 40ml 26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권유진*

런드레스 패브리 프레쉬 사름을 많이 만드는 직업이라 향이나 체취에 항상 신경 쓰는 편. 이 립을 앞두고 불쾌한 냄새가 옷에 배면 무척 난감하다. 이 립 때를 대비해 패브리 프레쉬를 피우차와 사무실 책상에 두고 사용한다. 뛰어난 탈취 효과와 거부감 없는 은은하고 향긋한 향으로 막 세탁한 듯 깔끔한 옷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50ml 3만2천원. 문의 02-2024-2015 *_by 에디터 권유진*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공진향 기원진 크림 2015년 헤라티지 에디션으로 출시한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스테디셀러 크림. 스페셜 에디션 크림 용량이 100ml에 달하고 공진향 품 클렌징 40ml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굉장히 매력적이다. 선물용으로 해도 더없이 좋은 제품이다. 공진향 기원진 크림 스페셜 에디션 기원진 세트 16만 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배기진*

나스 나이트 시리즈 아리아너 한 번의 터치로 스욱 그려지는 크리미한 질감이라 쓰기 편한 아리아너이다. 번짐이 확실히 덜해 도량한 눈매를 유지해주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편이다. 짙을 필요 없이 돌려 사용하는 방식도 마음에 든다. 0.58g 3만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예진*

SK-II 페이스리 트리트먼트 에센스 패브리 에센스는 프레스 키트를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이다. 그만큼 브랜드의 한결같은 베스트셀러라는 증거.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각질이 올라올 조짐이 보이면 화장실에 들뿍 들어 얼굴에 불이 끈 짜림 이용하 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작은 용기에 들어 미스트처럼 사용해도 좋다. 75ml 9만원 대. 문의 080-023-3333 *_by 에디터 이예진*



밤 사이 지속되는 코르셋 효과

마스크의 강자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프레쉬의 마스크 계보는 화려하다. 로즈 페이스 마스크부터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크랜 앵지앤즈 얼티밋 너리싱 허니 마스크까지, 모두 출시부터 이슈가 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한 제품들이다. 이러한 이력을 자랑하는 프레쉬에서 올해를, 마스크 마니아라면 기대해도 좋을 마스크 신제품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밤 전용 슬리핑 마스크인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로 사랑받고 있는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와 듀이를 이룰 프레쉬의 차세대 마스크다. 기존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가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 사용해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면,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잠들기 전 마지막에 발라 자는 동안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집중 효과를 발휘한다. 프레쉬가 유독 밤에 주목한 이유는, 낮 동안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는 밤이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면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탄력을 잃기 때문. 그러므로 밤에 제대로 케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피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탄생한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피부가 회복되는 밤의 사이클을 활용, 보습과 영양, 그리고 탄력 개선 성분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마치 피부가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탄력 있게 조여진 듯한 느낌을 주어 밤 빠른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선 벌써 '코르셋 마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특히 요즘같이 게을러지기 쉬운 추운 겨울날, 팩을 한 후 헛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다른 마스크 제품과는 달리 도톰하게 바르고 그냥 자기만 하면 끝이니 이보다 더 간편할 수 없다.

피부 동면을 깨우는 비밀, 블랙티 콤플렉스

바르고 지는 것만으로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이 마스크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비밀의 핵심은 모든 프레쉬 블랙티 컬렉션에 함유된 블랙티 콤플렉스에 있다. 블랙티 발효물, 블랙베리 잎 추출물, 리치 시드 추출물 등으로 이루어진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 외부 유해 환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특징. 여기에 밤을 위한 마법의 성분이 하나 더해졌는데, 프레쉬의 새로운 성분인 벨 드 뉘 추출물이다. 분꽃이라고도 불리는 벨 드 뉘는 늦은 오후에 피어나 한밤중에 만개하는 야생화. 이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 밸런스를 맞춰 밤 사이 더 화사하게 피어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스펙셜 케어 제품인 만큼 텍스처도 단연 돋보인다.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가 셔벗같이 촉촉하고 시원한 발림성이 특징인 텍스처였다면,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좀 더 끈적하고 리치한 질감으로 바르는 동안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진하게 우린 풍부한 블랙티 향은 마치 고급 SPA에서 케어받는 듯 심신을 편안하게 릴랙싱시켜준다. 보다 반가운 소식은 1월 2일부터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포함해 20만원 이상 구매 시, 프레쉬의 베스트 마스크 트리플 샘플 키트(로즈 페이스 마스크 20ml,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20ml, 슈가 페이스 폴리쉬 20ml)를 증정한다는 것. 프레쉬의 베스트셀러 3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겨울철 점점 길어지는 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다.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100ml 13만8천원대, 블랙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100ml 13만8천원대.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권유진*



Night magic

피부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는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피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스크의 강자 프레쉬가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는 밤 사이 지친 피부를 일깨워 젊은 피부로 변화시켜줄 피부 묘약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world leader of Noble Fibres

계절과 유행을 타지 않는 진정한 럭셔리 세계. 콜롬보의 거대한 공장을 둘러보고, 3대를 이어온 패밀리 기업의 단단한 브랜드 철학을 실감했다면 이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울, 캐시미어 같은 친숙한 소재부터 비큐나, 파나코, 캐멀 헤어, 안지르 등의 생소한 소재까지, 콜롬보의 혁신과 기술이 만들어낸 이들 소재는 퀄리티와 가치는 물론, 우리에게 럭셔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이탈리아의 보르고세시아(Borgosesia)에서 만난 콜롬보의 노블 파이버 월드.

진정한 이탈리아인 럭셔리, 퀄리티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콜롬보(Colombo)는 50년의 역사를 지닌 기업으로, 1960년대에 창업자 루이지 콜롬보(Luigi Colombo)가 경영한, 캐시미어, 울 같은 최상급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비롯되었다. 루이지 콜롬보는 창립자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아티스트이자 폭넓은 시야로 노블 파이버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선도자이자 항해사이기도 했다. 기업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유명 텍스타일 회사를 운영하던 삼촌의 손에서 성장했는데, 이는 그가 희귀한 프레스티지 소재에 관심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희귀한 소재들이 원단업체에서 가치 있는 니치 마켓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결국 캐시미어, 비큐나, 파나코, 캐멀 헤어 등의 소재를 개발, 혁신하는 데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가 늘 직원들에게 하던 얘기는 언제부터인가 콜롬보의 기업 철학이 되었다. "스태프들에게 얼마나 팔 것인지 물어보지 마라. 다만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을 좋아했는지를 궁금해하라. 1970년대, 2세대인 그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합류하면서 콜롬보는 국제적 기업에 걸맞은 규모를 갖추어 각 분야 최상급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발로 콜롬보는 고급 소재의 원단 생산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선 기술을 보유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갔다. 그리고 전 제품을 완벽한 메이드 인 이탈리아(Made in Italy)로 생산해, 창업 당시의 이념인 퀄리티 중심의 기업 마인드를 유지하며 4백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Values become culture, culture becomes quality"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생산 과정 전체를 하청 없이 본사 직원이 모두 다 맡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1~2곳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보르고세시아(Borgosesia) 본사에서 캐시미어, 밍크, 비큐나 같은 최고급 원사와 원단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재공하며, 여기서 조금 떨어진 겐메(Ghemme) 지역에서는 이 원단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기성복을 선보이고 있다. 제작 과정은 총 94단계의 생산 공정과 18회의 중간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콜롬보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또 전 세계 희귀 동물 보호 규정인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를 준수하기 위해 콜롬보는 1992년부터 비큐나, 파나코 등의 희귀 동물을 아르헨티나 농장에서 직접 사육해왔다. 이렇게 탄생한 최고급 원단들은 콜롬보는 에르메스, 셀린느 등 유명한 하이엔드 브랜드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며 이들 럭셔리 브랜드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 에르메스의 고장 루이 뒤마 회장이 자사 제품의 품질에 자부심을 드러내며 특별히 캐시미어 분야에서는 콜롬보 노블 파이버의 공이 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콜롬보 역시 뒤마 회장의 이 말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고 뿌듯했다고 회고했다. 현재 콜롬보는 2000년대 들어 패브릭 프로덕션과 최상급 소재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High Class Soft Casual Wear를 콘셉트로 하는 패션 레디투웨어 등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9월, 밀라노의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스토어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프리미엄 레디투웨어 브랜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에르메스나 루이 비통처럼 가족의 전통 사업을 계승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꿈인 콜롬보 노블 파이버. 콜롬보의 3대 경영진은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들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했으며 결국 트레이디션과 모더니티가 결합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탈리아인 특유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품질 최우선의 장인 정신, 그리고 범주적 없는 혁신과 개발. 이 럭셔리 브랜드의 앞

Kate Jacket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 콜롬보의 프리미엄 라인인 케이트 재킷은 시즌을 관통하는 스타일셀러이자 아이코닉 아이템으로 미디어 길이의 싱글브레스트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최고급 캐시미어와 실크를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기품 있고 절제된 디자인이 풍부한 컬러와 어우러져 품격 있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오랫동안 연구한 콜롬보만의 염색 기법을 통해 구현한 우아한 색상의 컬러가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현재 한국에는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신라 호텔 에케이드, 대구 대백플라자,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에 4개의 매장이 있다. 문의 02-3213-2303

The Dream Factory & The Dream Fab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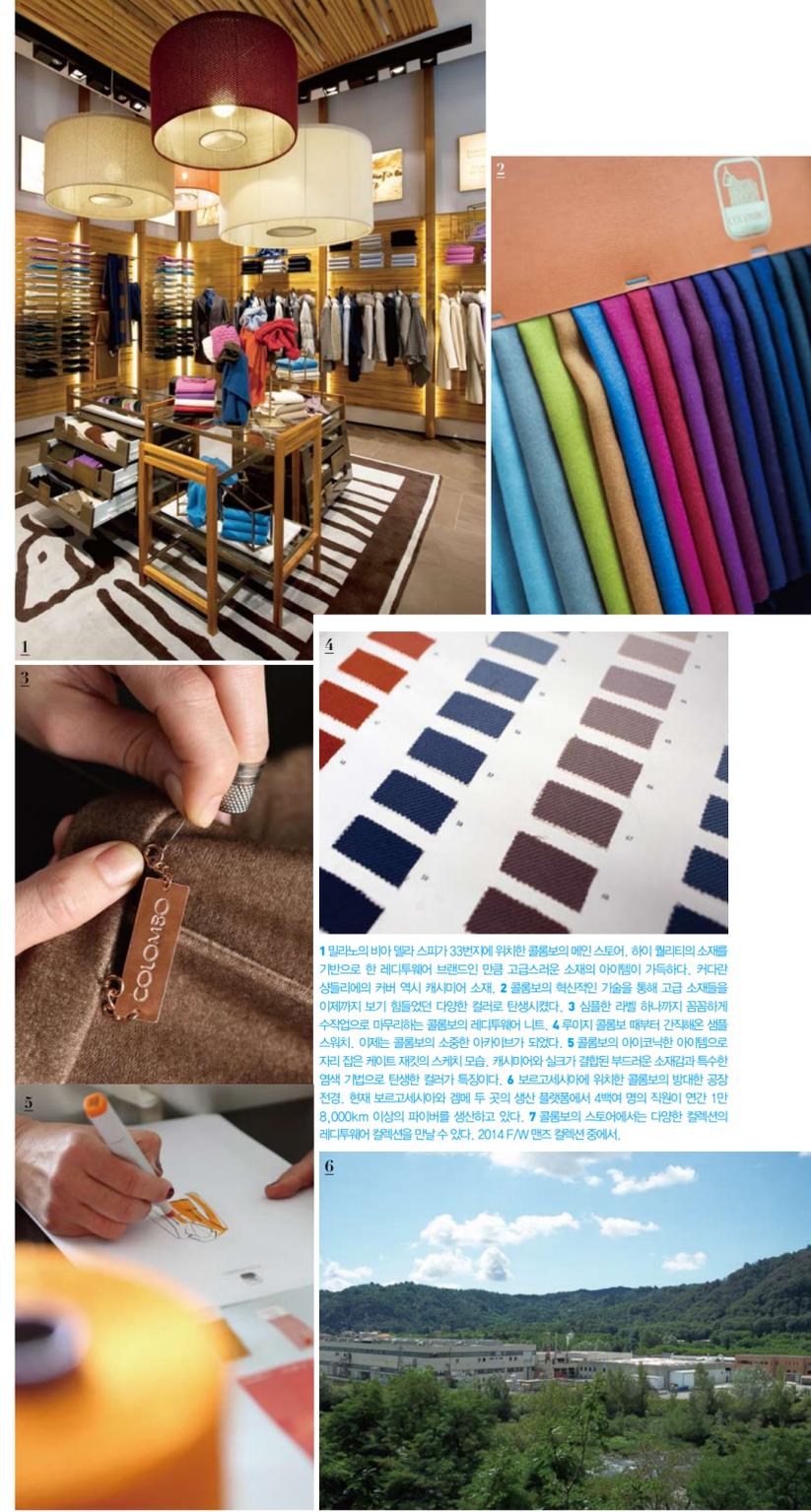
콜롬보는 전 세계 50여 곳에 분포한 사육지에서 동물이 털갈이를 할 때 획득되는 털을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캐시미어와 캐멀 헤어는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구입하는데, 이 지역의 원사가 굉장히 기쁘고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캐시미어(cashmere)는 인디아, 몽골, 중국,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과의 포유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급 원사. 최상급으로 알려진 화이트 캐시미어를 비롯해 다양한 내추럴 컬러의 원사 중 콜롬보는 부드러운 숄털만 뽑아 직조한다.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모의 양이 5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희소성과 섬세한 수공의 공정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높은 보온성과 편안함, 부드러운 질감과 우아한 드레이프성으로 '섬유의 다이아몬드'로 일컬어진다. 비큐나(vicuna)는 낙타과 동물 중 가장 작은 동물이며 볼리비아, 칠레, 페루에 걸친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생활한다. 적황색과 짙은 황갈색, 흰색의 긴 털이 다리 아래까지 늘어지는 초식동물로, 3년마다 털을 깎을 수 있어 양모 생산량이 적은 만큼 희소성 높은 최상급 소재로 알려져 있다. 비큐나는 현재에도 CITES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으며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 비큐나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모는 3년간 250g에 불과해 연간 약 80g의 양모가 생산되는 셈이며 이는 캐시미어 염소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의 6분의 1 정도다. 파나코(guanaco) 역시 낙타과의 희귀 동물로 페루, 아르헨티나 등 주로 남미 지역에 서식한다. 파나코 섬유는 특수 시어링 기술로 레드 브라운 컬러의 가벼운 숄털만 채취해 가장 부드럽고 세련된 최상급 패브릭으로 생산된다. 콜롬보는 1990년대에 파나코의 원산지인 파타고니아에 이 동물을 방목하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진행한 이 프로젝트로 이 지역 파나코의 모질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티베트산 염소에서 추출한 밝은 색의 안지르(yangir)는 야생 산양의 일종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안지르는 캐시미어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과 자연스러운 금빛이 도는 숄털로 차세대 노블 파이버 원단 중에서도 최상급 소재로 꼽힌다. 콜롬보는 안지르 패브릭을 개발해 2011년 가을, 겨울 시즌, 패션 마켓에 최초로 이 새로운 프리미엄 패브릭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콜롬보는 털을 얻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알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데에는 15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1년 기준으로 캐시미어는 3백 톤, 캐멀은 1백50톤, 앙고라는 1백 톤, 비큐나는 2톤, 비조네·어민·친질라는 3톤 정도 생산한다. 특별히 이중 개체 수 감소와 수요 증가로 멸종 위기 동물 목록에 오른 비큐나는 거래 제한을 위해 원단에 원산지지를 표기한다.



가문의 열정, 기업의 책임감이 되다. 콜롬보의 CEO 로베르토 콜롬보와의 일문일담

어떻게 노블 파이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대학 시절인 1970년대는 캐시미어가 지금의 비큐나처럼 고급스러운 소재였다. 아버지가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공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작은 공장이었다면 미래에는 원단의 고급화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노트에 원사 고급화 프로젝트라는 글귀를 쓰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다. 1996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칠레 등 전 세계를 돌며 캐시미어를 대체할 것을 찾았다. 이때 동물의 털갈이 털을 이용해 고급 원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70년대 캐시미어처럼 지금은 비큐나가 최고급 원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래에는 어떤 소재가 최고급으로 취급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비큐나를 비롯해 알비노 낙타, 어린 등의 동물에서 채집한 최고급 소재는 이미 최상급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가공 기술을 더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콜롬보 노블 파이버는 기존의 원사들과 어떻게 다른가? 고급 소재는 원재료를 어디서 구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캐시미어 같은 경우 얼마나 가볍고 긴지가 품질을 좌우한다. 동물의 특성상 숄털 건조하면 털이 총총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동물의 털은 가능하다. 콜롬보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몽골 일리산 지역에 양질의 캐시미어를 구한다. 원사를 가공해 원단으로 만드는 과정도 특별하다. 캐시미어를 염색하거나 스핀 소재를 합성해 신축성을 더하는 것 등은 이미 20~25년 전에 콜롬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보르고세시아와 겐메 지역으로 생산 라인을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르고세시아에서는 원단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겐메 지역에서는 20년 전부터 아바인 케이트가 레디투웨어를 만들고 있다. 25년 전 회사에 합류한 케이트는 처음에 액세서리 디자인부터 시작해 지금의 레디투웨어까지 단계별로 성장했다. 베스트셀러인 케이트 재킷 역시 그녀의 이름을 딴 제품이다. 양질의 캐시미어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세 가지만 알려달라 좋은 제품은 광택과 입체감이 눈으로 느껴진다. 손으로 만났을 때 촉감이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털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을 골라야 세탁했을 때 변형이 덜하다. 홍콩, 도쿄, 서울에 이어 올해(2015년 기준) 중국에까지 사업을 확장한다고 들었다. 아시아 시장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1년에 2개 정도씩 매장을 열 생각이다. 패밀리 비즈니스로 자부심이 큰 만큼 큰 회사에 팔고 싶지는 않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도 역시 경제 위기가 왔지만 최고급 럭셔리 제품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제 많은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다. 마케팅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1 밀라노의 비아 델라 스피가 33번지에 위치한 콜롬보의 메인 스토어. 하이 퀄리티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레디투웨어 브랜드인 만큼 고급스러운 소재의 아이템이 가득하다. 커다란 상층부의 커바 역시 캐시미어 소재. 2 콜롬보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고급 소재들을 이제까지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컬러로 탄생시켰다. 3 심플한 라벨 하나까지 꼼꼼하게 수직업으로 마무리하는 콜롬보의 레디투웨어 니트. 4 루이지 콜롬보 때부터 간직해온 생물 스카치. 이제는 콜롬보의 소중한 아카이브가 되었다. 5 콜롬보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케이트 재킷의 스카치 모습. 캐시미어와 실크가 결합된 부드러운 소재감과 특유한 염색 기법으로 탄생한 컬러가 특징이다. 6 보르고세시아에 위치한 콜롬보의 방대한 공장 전경. 현재 보르고세시아와 겐메 두 곳의 생산 플랜트에서 4백여 명의 직원이 연간 1만 8,000km 이상의 파이버를 생산하고 있다. 7 콜롬보의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2014 F/W 멘츠 컬렉션 중에서.

